

2011년 8월  
석사학위논문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모 상 근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On the support policy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for vitalizations of the amateur cultural and artistic groups.

2011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모 상 근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승 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

모 상 근

# 모상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설 헌 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하 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환 (인)

201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 1장 서론 .....	1
1-1. 연구배경과 목적 .....	1
1-2. 연구범위와 방법 .....	3
제 2장 아마추어 예술과 공공지원 .....	5
2-1.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 및 등장 .....	5
2-2. 아마추어 예술의 특성 .....	12
2-3.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관한 이론적 근거 .....	18
제 3장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지원 현황과 분석 .....	30
3-1. 서울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31
3-2. 경기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42
3-3. 인천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54
제 4장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지원 개선방안 .....	62
4-1. 지원대상의 역량강화 .....	62
4-2. 지역연계 및 교류 활성화 .....	64
4-3.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합리화 .....	67
4-4. 지원기관 체계화 .....	69
제 5장 결론 .....	74
참고문헌 .....	76

# 표 목 차

<표 1> 설립년도 기준 광역문화재단 분류 .....	3
<표 2> 취미생활자와 전문가의 연속체 .....	7
<표 3> 문화예술의 외부경제 효과성의 이론적 근거 .....	9
<표 4>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비교 .....	25
<표 5>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	29
<표 6> 2010년 광역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	30
<표 7> 광역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분류 .....	31
<표 8>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경과 .....	32
<표 9> 200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개선 내용 .....	35
<표 10> 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	38
<표 11> 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상세내역 .....	40
<표 12> 2009~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축제 지원사업 현황 .....	41
<표 13> 1998~2006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지원사업 지원현황 .....	44
<표 14> 2005~2006년 경기문화재단 정기공모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부내역 .....	44
<표 15> 2007~201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	45
<표 16> 2008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금 기준표 .....	46
<표 17> 201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내용 .....	48
<표 18> 2010년 경기문화재단 시니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	49
<표 19> 2010년 경기지역 기초 자치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현황 .....	53
<표 20> 2005~2010년 인천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경과(단위:천원) .....	54
<표 21> 2007년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평 요약 .....	56
<표 22> 2010년 인천문화재단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	59
<표 23> 2009~2010년 인천문화재단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분야 선정결과 .....	60

# Abstract

On the support policy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for vitalizations of the amateur cultural and artistic groups.

Mo Sang-kun

Advisor : Prof. Kim Seung-hwan, Ph.D.

Department of Aesthetic and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aims to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local cultural foundation support policies for local and regional amateur artists. This thesis focuses on a 'cultural welfare' concept that emerged in the mid-1990s a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cultural policy.

This cultural welfare established its policy agenda as the promotion of cultural sensitivity and the enhancement of creativity through cultural means and education. At the same time, the object/interest of the policy targeted the audience or dabblers not the artists themselves. The general public also has shown a growing interest in 'cultural life', actively engaging in the actual participation of art-producing/enjoying activities.

This phenomena demanded modifications in the plans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which aspire to promote artistic activities at the local level. This thesis compiled, compared and analyzed plans for the support of artists from local cultural foundations, suggesting realistic and viable management measures.

This thesis is composed as follows. The second chapter scrutinizes

the justifiability of public support for 'Amateur Art' . The concept of amateur art is discussed as a theoretical concept, and how the public support plan in the general art sector is justified while also including counterarguments. The backbone of the theoretical concepts is 'Cultural Rights' , 'Populism' and 'Cultural Democracy' .

Chapter 3 examines the status quo of plans to support artists from local cultural foundations. The research process actively utilized a variety of relevant documentary sources found in those foundations, whilst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upport plans of individual foundations.

Chapter 4 determines a desirable support plan which can be practically applied and adopted by local cultural foundations. The eight recommended measures are based on the points detailed in the previous chapters. These eight provisional plans entail re-establishing the concept of amateur art; strengthening the competence of amateur art groups building multi-channel exhibition spaces and stimulating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community; expanding interchanges and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artists; the segmenting of support plans and roles in different art sectors; dividing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cultural foundations and municipal cultural foundations; re-adjusting support plan management processes; and consolidating and diversifying the follow-up process of promotional means.



#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과 목적

문화예술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아마추어(Amateur)’ 예술 활동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1996년에 이르러, ‘문화복지’가 참여정부 정책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에 따라 문화를 통한 감수성 증진과 창의성 제고가 문화정책의 목표로 제시되면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기존의 창작자 위주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확대 되었다.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욕구도 단순히 감상하고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영역으로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복지 개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의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직접 추진해오던 일부 지원 사업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지역 단위의 지원정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심의와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지역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1997년 이후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재단들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수혜의 기회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도 열리게 되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술 정책의 기조로 삼은 4대 지원원칙<sup>1)</sup>이 천명되었

1) 2008년 9월 3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문예술단체 육성** <① 예술 활동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직업’으로 생각하는 프로페셔널 예술가와 전문예술단체 중심 지원/ ② 방만하고 일회적인 나눠주기식 지원의 반복에 따른 공공 의존도 심화에서 탈피하여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형성/ ③ 철저한 평가 및 책임지원 체계 확립으로 지원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2. 사후 지원 체계 마련** <① ‘계획서’나 ‘프레젠테이션’만으로 예술 단체를 사전에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에서 탈피하여 사후적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 확립함으로써 단계적 성장 지원/ ② 예술단체의 자발적 창작 노력과 관객 개발 성과를 전제로 시장과 관객의 역할과 선택을 존중하는 풍토 형성/ ③ 전문가 및 관객의 비평가 모니터링 활성화로 다면적인 예술역량 평가환경 조성> **3. 간접 지원 사업 확대** <① 공간 대관, 연습실 제공, 무대기술 인력 지원 등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창작 활성화 도모/ ② 예술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연장, 미술관 등 매개역할을 하는 거점 공간의 프로듀서 및 기획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및 책임 강화 필요/ ③ 공연·전시 기획, 마케팅, 관객 개발 등 예술경영 역량 강화> **4. 생활 속의 예술 확대** <① 지역재단 중심 지원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현지밀착형 지원사업 확대/

다. 그중 ‘생활 속 예술 확대’ 분야에 ‘아마추어 동호인 문화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른다. 2010년부터는 서울의 영등포구, 성동구가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등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영역의 지원은 광역단위를 넘어 기초자치단위로까지 확대되었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전문예술인의 영역이었던 공공문화시설과 국제행사, 지역축제의 예술창작 활동 발표영역에도 아마추어들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문화회관 무대를 아마추어들에게도 일부 개방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에 아마추어 예술 단체들이 참여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아마추어 예술인만을 위한 축제를 주최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도 2010년 전문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위한 전시가 함께 열리고, 전문공연단체가 참여하는 국제공연예술 행사에 아마추어 공연단체가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아마추어 예술 단체와 개인의 활동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될 수 있는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을,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내지는 이론적인 근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지원효과 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추어들이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고민과 함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지원의 대상과 장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전문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문제에도 대해서도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하다. 더욱이 우수한 예술창작 활동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아마추어들의 예술창작 활동까지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영역, 특히 지역문화재단 지원의 의미와 방향은 무엇인가? 아마추어 예술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

---

② 전통적인 유통경로인 공연·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이 생활 하는 일터와 가정과 커뮤니티 속에서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③ 전문 예술가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수요자가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생활 속 예술 활동 참여 여건 마련>

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아마추어 예술의 특성과 공공지원에 대한 배경을 검토해 볼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문화예술 공공지원기관<sup>2)</sup> 중 하나인 지역문화재단과 그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아마추어 예술 단체이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아마추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지역문화재단은 기존의 예술가 창작 지원 사업 이외에도 지역민의 예술 활동 진흥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시민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공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은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기관으로서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중에서 직접지원 사업만으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간접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내용적으로 유사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까지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설립년도	광역문화재단	비고
2003년 이전	경기(1997), 강원(1999), 제주(2000)	
2004년	서울, 인천, 광주(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광주문화재단출범(2010)
2009년	부산, 대구, 대전, 전남	
2010년	경남	

<표 1> 설립년도 기준 광역문화재단 분류

2)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공공지원 기관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광역자치단체 문화재단 11곳,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 23곳 (2010년 기준) 등이 있다.

구체적 연구대상으로는 광역지역 11개 문화재단 중에서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연구 범위를 한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09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 지역문화재단 5곳(부산, 대구, 전남, 대전, 경남)은 사업을 진행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비교적 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재단 3곳(강원, 제주, 광주)도 독립적인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실적이 전무하거나 미비하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위의 지역문화재단은 2004년 이전에 설립되어, 5년 이상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게다가 그 사업들을 진행하며 소기의 성과와 매년 보다 나은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범위는 각 재단의 설립 이후 2010년까지 진행된 아마추어 지원 관련 사업을 검토하되, 2010년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재단의 지원 사업 공고, 선정단체공고 및 심사평, 심사기준, 재단 발간자료, 백서, 연감, 관련연구논문, 발제문, 기고문, 각 기관의 웹사이트 등 문헌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 기본 자료를 지원목표, 지원대상, 지원액, 신청건수, 선정건수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방향과 목적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아마추어에 대한 개념과 아마추어 예술의 등장배경 및 특성 등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지원의 타당성을 정리한다.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아마추어 예술이 진입하게 된 상황을 사회변화와 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해 본다.

3장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사업 현황을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순으로 살펴본다. 주요 검토 내용은 아마추어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의 흐름과 구체적인 세부 사업, 지원받은 아마추어 예술단체의 활동과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현황들에 대해 분석과 해석을 시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을 제안한다.

## 제2장 아마추어 예술과 공공지원

### 2-1.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 및 등장

‘아마추어 예술’이라는 용어는 아직 일반화되지 못했다. 그 실례로 ‘시민 예술 활동’, ‘자발적 예술 활동’, ‘생활 속 예술 활동’ 등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amateur arts’, ‘voluntary arts<sup>3)</sup>’, ‘informal arts<sup>4)</sup>’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관련용어가 다양한 것은 다루는 영역과 중점을 두는 부분에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amateur)’의 사전적 정의<sup>5)</sup>를 살펴보면, ‘취미’, ‘비전문가(non-professional)’, ‘본업이 아닌’ ‘애호가(愛好家)’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2006년 실시한 「아마추어 음악 동호회 조사」 연구는 ‘본업이 아니거나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애호가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정의하면서, ‘직업이 아님’과 ‘애호가’의 성격을 강조했다.<sup>6)</sup> 한편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시민 문화 예술<sup>7)</sup>’이라는 용어를 도입했으며, 민간 영역인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 
- 3) ‘voluntary arts’는 영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로 자발적인 공적 활동에 적용되는 voluntary라는 용어를 예술 앞에 붙여 예술이 단순히 사적인 취미가 아니라 스스로를 공적 존재, 즉 시민으로 만드는 주요 자원임을 강조하고 있다.(심보선 외,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 본 문화예술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제8권, 2010, pp.39~82.)
  - 4) 미국에서는 The Chicago Center for Arts Policy at Columbia College(CCAP)에서 제안한 informal ar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공식예술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이 주로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5)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하는 사람’, ‘비전문가’로 순화, ‘본업으로 하지 않고 예술과 스포츠 등을 애호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직업적 프로페셔널(professional)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스포츠계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네이버 사전)
  - 6) ‘음악 동호회 설문조사’에서는 다음 3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아마추어 단체로 규정하였다. ①회원에게 급여나 연주회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②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③회원들이 음악관련 활동 즉, 연주회, 레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이다.
  - 7) ‘시민문화예술’이라는 단어의 ‘시민’에는 사실 전문예술가와 비전문예술가 모두가 포함될 수 있어 정의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 문화 예술’은 ‘전업작가’ 등 전문예술인의 ‘전문예술’이 아닌 문화예술을 ‘취미’로 하는 비전문 예술인들의 ‘아마추어 예술’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전문 아마추어 예술’로 정의한다.(박승현, 「성남시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사례」, 『예술정책의 현안과 대안모색: 정책으로 답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0, p.259.)

에서는 ‘아마추어 예술가’ 대신 ‘생활 활동가’ 라는 새로운 용어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sup>8)</sup> 영국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정의하면서 자기개발과 네트워킹, 여가를 위해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만 생계나 수입을 위한 활동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공지원의 영역에서는 캐나다의 사회학자 로버트 스테빈스(Robert A. Stebbins, 이하 ‘스테빈스’) <sup>10)</sup>가 『아마추어, 전문가, 그리고 진지한 여가활동(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1992)에서 제시한 ‘아마추어’의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가 정의한 아마추어는 기존의 ‘아마추어 같은(amateurish)’이라는 용어에 내제된 ‘전문성이 결여된, 미숙하고 서투른’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와는 대조적으로 ‘전문가에 가깝다(near professional)’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스테빈스는 취미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관심 분야에 전문적인 수준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진지한 여가활동(Serious Leisure)’이라 하고, ‘가벼운 여가활동(Casual Leisure)’과 구별하였다. 진지한 여가활동은 ‘아마추어(amateur)’, ‘취미생활(hobbyist)’, ‘자원봉사(volunteer)’ 세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여가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전문적 수준의 기술, 지식과 경험을 쌓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1)</sup> 그는 진지한 여가활동 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활동을 ‘아마추어’로 분류하였다.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활동은 취미에 그치게 되지만, 전문가가 존재하는 영역에서는 취미 이상의 전문가 수준에 이르는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스테빈스는 오케스트라나 앙상블 활동, 고고학, 천문학, 야구, 캐나다 축구, 스텐딩 코미디, 마술 등의 영역<sup>12)</sup>에서 ‘아마추어’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이들의 활동이 진지하고 체계적이며 관객을 갖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전문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비비터와 밀러(Leadbeater & Miller)는 스테빈스가 정의한 ‘진지한 여가활동’의 ‘아마추어’라는 용어 대신 ‘프로-암(Pro-Am)’이라는 신조어를 제안하

8) 인천문화재단, 『2010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심포지엄, 동아시아 연대와 시민문화의 재발견』, 2010, p.99.

9) DCMS,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and*, Art Council England, 2008, p.18.

10) 스테빈스는 사회학자라는 본업 이외에 십년 이상 앙상블 활동에 참여해 온 아마추어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아마추어’를 연구하였다.

11) 정지원, 「한국 미술계의 전문적 아마추어(Pro-Am): 비정규 교육기관 소속 화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p.5. 정지원이 스테빈스의 아마추어 개념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

12) 여가활동을 대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예술 활동은 여가활동의 한 분야로 다루고 있다.

였다.<sup>13)</sup> 프로-암의 활동은 일과 여가, 전문가와 아마추어, 생산과 소비라는 전통적인 정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프로-암은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하지만 일하는 시간 외의 주말, 휴일, 저녁시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여가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리드비터와 밀러는 단순 취미생활자에서 숙련된 아마추어,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 준-전문가, 전문가에 이르는 연속선상에서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와 ‘준-전문가’를 프로-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준-전문가’들은 공모전과 공식대회에 참가하거나, 공연과 전시활동을 하는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들과 영역이 중첩되기도 한다. 한편 ‘숙련된 아마추어’들은 공연활동과 시합에 참가하지 않는 아마추어들과 구분할 수 있다.

프로-암(Pro-Ams)				
Devotees, fans, dabblers and spectators 열성적인 애호가, 취미생활자, 관중	Skilled amateurs 숙련된 아마추어	Serious and committed amateurs 진지하고 헌신적인 아마추어	Quasi-professionals (pre-professionals, semi-professionals, post-professionals) 준-전문가	Fully-fledged professionals 완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표 2> 취미생활자와 전문가의 연속체(Leadbeater & Miller, 2004, p23)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영역의 지원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 예술’은 단순한 여가선용과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취미생활의 단계를 넘어 발표활동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스테빈스가 제시한 ‘진지한 여가생활’을 하는 아마추어의 개념과 리드비터와 밀러가 제시한 ‘프로-암’에 가까운 ‘전문성을 지닌 아마추어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의 등장배경은 문화예술을 감상하는 소비자이자 직접 창작하고 참여하는 생산자들인 프로슈머(prosumer)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sup>14)</sup>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는 전통적인 개념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sup>15)</sup> 문화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에는 문화

13) Charles Leadbeater & Paul Miller, *The Pro-Am Revolution*, Demos, 2004, pp.22-24. 정지원의 앞의 글 pp.5~6 정리.

14) 프로슈머의 등장은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개념이다.

15)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 ‘참여, 공유, 개방’으로 대표되는

예술의 생산과 소비영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의 작품을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의 장비와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을 창작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흔해졌다.<sup>16)</sup>

이처럼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전문가와 아마추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분법 구조가 점점 약화되면서, 문화정책의 영역 설정에 있어서도 이분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접근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는 문화정책 대상으로서의 국민의 개념이 소비자에서 창조자의 개념으로 전화되고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sup>17)</sup> 예전에는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대상을 크게 생산자인 예술가 지원과 소비자인 향유자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지만, 문화예술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문화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집합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아마추어 예술도 예술지원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른 것이다.<sup>18)</sup>

경제발전과 함께 전반적인 교육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창조활동에 직접 참여하고픈 욕구가 증대된 것도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한 것으로 여겨졌던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화예술을 접한 소비자들은 단순히 예술가가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TV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와 아마추어

---

Web 2.0 시대의 도래,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 UCC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은 더욱 불분명하게 되었다.

16)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사진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고급사양의 DSLR카메라가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을 바탕으로 공모전에 출품하고 전시회를 여는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많아졌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UCC는 마케팅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방송을 콘텐츠로도 제공되는 등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 소비과정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

17)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p.33.

18) 문화 창조의 주역은 전문예술가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가들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생산 영역에서 문화행정의 초점은 개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예술적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기회를 마련해주는데 맞춰져야 할 것이며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시설 공간 제공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된다.(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20집, 2008, p.165.)



합창단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는 일련의 현상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예술이 주는 감동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예술 창작 및 표현에 대한 욕구가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19)</sup>

국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예술을 감상하고 소비하는 활동과 직접 표현하고 생산하는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상하는 소비를 많이 경험하다보면, 직접 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일부는 창작활동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일반인들이 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단계가 ‘창작 활동 참여’라 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다보면, 예술 감상에 대한 욕구가 더불어 증가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이 전문 예술 분야와도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교육과 감상 측면에서 전문예술인과 연계되어 있다.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들은 상호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증대시키는 것도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된다.<sup>21)</sup> 앞서 논한 ‘아마추어’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가와 금전적, 조직적 관계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교육과 행사, 다른 소모임과의 연결을 주선함으로써 전문적 아마추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22)</sup>

또한 ‘프로슈머’들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마추어들이 취미수준을 넘어 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일수록, 전문가들은 이들과 차별화된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아마추어들이 프로의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그 범위가 확장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을 시도해 전반적으로 해당분야가 발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은 전문예술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되며, 상호교류를 통해 동반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의 자생력과 저변 확대 측면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문화정책의 지향점으로

---

19) 2008년 가을에 방영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와 2010년 여름에 방영된 KBS2 ‘해피 선데이-남자의 자격’은 당시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20)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예술소비는 비례하기도 하지만 아마추어 예술 활동 자체가 예술 향유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중의 예술접근성 제고방안 연구』, 2008, p.131.)

21)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출판부, 1999, p.77.

22) 정지원, 앞의 글, p.13.

‘문화 복지’ 개념이 부각되고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 평생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에 대한 공공에서의 관심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정책대상으로서의 문화는 초기에는 전통예술과 고급예술에만 한정되었지만, 창작 중심의 예술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점차 일상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정책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문화 복지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지원정책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문화정책의 태동기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1973년 문예진흥기금을 관리와 지원을 위한 특수법인 형태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등 공적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시기였다. 이 시기의 주요한 지원의 대상은 전통예술과 고급예술이었다. 1980년대는 전문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예술의 기반을 마련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의 초점은 소비 차원의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맞춰져 있었다. 1990년 1월 3일 문화행정 전담부서로 문화부가 신설되면서 국민의 문화 향수권 및 참여권 신장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문화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이후 1990년대 초 문화가족 운동과 문화학교 사업이 시작되면서 아마추어 예술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설정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생활이 중요시 되면서, ‘문화의 민주화’를 넘어 ‘문화민주주의’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는 OECD 가입(1996년)을 계기로 선진국 수준의 여가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에 ‘문화복지’를 주요 영역으로 포함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되었다.<sup>23)</sup>

이렇게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문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 복지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환경의 조성이며, 추진방향은 전문예술인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중심계층 위주에서 취약계층 위주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것이다.<sup>24)</sup> 1996년부터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복합 문화공

23) 1996년 문화복지 기획단이 구성(3.22.)되고 ‘문화복지 중장기 실천계획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었다.

간인 문화의 집이 건립되는 등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정책영역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IMF 경제위기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실질적으로 1990년대는 ‘문화의 민주화’ 차원에서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고급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생산자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일반 시민의 참여와 체험을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된다.<sup>25)</sup>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문화정책의 영역에 진입하게 된 또 다른 계기 중 하나는 지방자치제 도입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다.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직접적인 지원은 경기문화재단을 필두로 한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sup>26)</sup>에 따라 1983년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용되면서,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정책은 1980년대에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문화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문화예술 정책 사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높이고 지역주민 스스로가 예술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다.

현재 중앙에서 집행되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은 지방으로 점차 이관되고 있는 추세이고, 2012년까지는 관련 사업을 담당할 광역단위의 지역문화재단 설립이 완료될 예정이다.<sup>27)</sup>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공공지원의 대상은 전문문화예술인과 단체에 한정되었으나, 지방자치제도 도입을 계기로 점차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참여활동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8)</sup>

24) 김정수, 앞의 글, p.307.

25) 서순복은 우리나라가 문화정책에서 문화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2005.2.)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2005.12.)을 제정한 2005년부터로 보고 있다.

26)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2항 ②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직할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둔다.(1982.12.28. 신설)

27) 1999년 문예진흥원이 직접 추진해오던 공모사업 중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문예활동 지원사업 800여 건을 서울을 제외한 각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였고, 2009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도해오던 예술창작 지원업무가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시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정책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양효석, 「한국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1.)

28) 중앙의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주로 시설, 단체,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방에서는 주로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이뤄지는 문화향유 기회 증진, 아마추어 등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p.311.)

이렇듯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중심이 이동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구광모는 “광역단체는 주민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예술의 향토성을 제고시키는 목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sup>29)</sup>고 하면서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나카가와 이쿠오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법체계와 제도가 유사한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결과로서 보다 나은 우수한 표현이나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표현물을 산출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적인 생활의 영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지자체 문화행정에서는 국가 정체성 진흥 사업의 하청이 아니라 주체적인 지역 정체성, 도시 정체성의 형성과 그 근거가 되는 시민 문화의 활성화를 본래 목표로 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프로,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시민이 존재의 근거이며, 시민문화의 활력야말로 지역도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sup>30)</sup>고 하였다. 무명의 프로페셔널이나 다수의 아마추어가 정책대상에서 배제될 것을 우려하여 모든 시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도 일상의 생활문화를 재평가하고 다양하고 창조적인 자기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술가다울 수 있다. 아마추어든 전문가든 그 예술 활동은 문화예술의 창조이다. 이제 아마추어의 예술 활동을 일상성을 의미하는 생활문화의 영역에 가두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개인 생활에 활력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활력을 주고 지역공동체성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2-2. 아마추어 예술의 특성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아마추어 예술의 특성을 공공영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표활동을 통한 공공영역 진입’, ‘공동체

---

29) 구광모, 앞의 책, p.438.

30) 이토오 야스오 외,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p.213.

형성을 통한 소통과 교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2-2-1. 발표활동을 통한 공공영역 진입

개인영역에 머물러 있던 취미수준의 예술 활동이 공공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는 ‘발표활동’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마추어의 예술 활동이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발표활동의 예로는 음악과 무용 분야의 연주회, 발표회와 같은 공연, 미술 분야는 전시회, 문학 분야는 작품집 발간과 낭독회를 들 수 있다. 예술창작 결과물 발표는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초보의 단계를 넘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아닌 단체(동호회)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마추어 발표 결과물의 수준을 떠나 관객들에게 공개하는 발표활동은 예술 활동이 공공의 영역과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취미로만 즐기던 사람들이 발표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아마추어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빈스는 아마추어는 취미생활, 자원봉사 분야와는 달리 관객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한 활동이 아닌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을 할 때 취미생활을 넘어 ‘아마추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는 아마추어들이 전문가와 연결되어 지도와 도움을 받는 동시에 자신의 작품이나 활동을 지지하고 즐기는 관객을 갖는 관계를 ‘P-A-P체계(Professional-Amateur-Public system)’라고 칭하고, 아마추어는 이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였다.<sup>31)</sup>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발표활동을 통해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지니고 있다.<sup>32)</sup> 아마추어들은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결과물을 타인에게 보여주면서 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는데서 활동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최초 관객은 가족, 가까운 친구, 동료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31) 정지원, 앞의 글, p.6.

32) 비공식 예술가들이 공연무대에 오르고 전시회를 열어, 공연 티켓을 팔고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로 인한 수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았다는 증거를 얻고 싶기 때문이다.(심보선 외, 앞의 글, p.71.)

공공영역에 진입하면서 발표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진행될수록, 관객은 가족의 지인, 친구의 친구, 타 동호회 회원, 지역사회 주민 등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관객 대상의 확장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발표 공간 다양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 집, 소규모 상업시설, 학교 강당이나 소극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아마추어 발표활동의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인만으로 구성되는 관객층이 보다 다양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발표공간은 문예회관, 구민회관,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 지역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거리, 지하철 역사, 공원 야외무대 등 관객 접근성이 높은 일상의 공간으로 더욱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에 크고 작은 문화시설들이 증가하면서, 문화시설들은 공간 운영을 위해 전문 예술인 외에 아마추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도 대관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원, 지하철과 같은 생활공간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 또는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아마추어 동호회들은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발표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문화시설의 경우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영역 진출은 지역문화시설과 일상문화공간의 증가와도 그 흐름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문화 공동체 육성사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성된 동호회는 발표활동을 해당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 동호회 모임과 발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이를 접하는 관객층이 더욱 다양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 2-2-2. 공동체 형성을 통한 소통과 교류

아마추어 예술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동호회, 동아리, 클럽 등으로 불리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한다는 것이다. 문화관련 아마추어 동아리가 형성되는 유형은 문화시설 중심의 모임 유형, 지역 내 기존 모임 중심유형, 자연발생적 모임유형, 직장 내 취미동아리 유형 등이 있다.<sup>33)</sup> 이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관심분야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다거나, 전문예술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임이 생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흥재는 널리 알려진 조직의 외곽에 자리

33) 김세훈, 『문화클럽 조성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25.

잡고 있으면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문화단체를 ‘문화소집단’이라 칭하고, 문화소집단의 활동은 사회적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문화적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만든 소집단<sup>34)</sup>의 확대와 확산은 결국 사회적으로 공동선을 확충하고 문화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하였다.<sup>35)</sup> 실제로 자발적으로 생성된 동호회가 유지되는 데는 예술 활동 자체 못지않게 회원 간의 교류와 친목도모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개인이 단체에 소속되어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다른 회원과의 관계와 친밀도는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술 활동은 그들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인관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세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서로 접촉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끼리 만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영국의 실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36)</sup> 미국에서도 비공식 예술 활동은 연령, 성별, 인종, 직위와 같은 사회계층간의 경계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며, 참가들 간에 신뢰감과 결속을 유도하며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대해 인정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단체의 활동과 모임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회칙과 같은 일정한 규율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준다. 또한 개인이 아닌 단체에 속해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고, 협력하여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오케스트라, 연극, 군무, 사물놀이 등에 참여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법,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소속원들 간에 끈끈한 유대감도 형성이 되는 것이다.

아마추어들은 동호회와 같은 단체 활동을 통해서 회원뿐만 아니라 전문예술인, 지역관련기관 등과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소통한다. 예컨대 공공지원 사업에 신청하면서 지역재단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에 주목하게 된 이유로 “개인적 문화예술 활동은 사적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반면, 그룹 활동이 필요한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의 활동은 개인 상호 간 소통과 교류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기 때문”<sup>37)</sup>이라고 하였다.

34) 문화적 코드와 관련하여 '취미로 이루어진 감성공동체는 개인적인 감성들이 타인의 소망을 동의하는 그 상대 자체를 근거로 삼는다. 사람들이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은 바로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한 동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는 의견이 있다.(심보선 외, 앞의 글, pp.66-67.)

35)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2005, 박영사, p.48.

36) 성남문화재단, 『세계문화클럽 포럼 자료집: 영국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 활동』, 2009, p.23.

앞서 단순 취미생활자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요소 중 하나를 ‘발표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표활동은 개인보다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마추어의 특성상 조직에 속해 있지 않으면 체계적으로 활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추어들은 개인적으로 발표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술의 경우 개인전 보다는 그룹전, 음악 분야의 경우 독주회보다는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공연 및 밴드 연합공연, 문학 분야의 경우 회원 작품집 발간 등 단체로 발표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화정책영역에서는 개인의 활동보다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아마추어 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호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호회의 이름으로 공공영역에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적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모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서 다른 아마추어들과 교류를 경험하는 등 공동체 형성을 통한 소통과 교류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 2-2-3.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성 회복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지역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은 지역주민들을 창의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커뮤니티 예술(community arts)과도 관련이 있다.<sup>38)</sup> 영국에서도 자발적 예술 분야는 지역공동체의 결속,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 지역공동체의 건강과 복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sup>39)</sup> 앞서 논한 공동체 참여를 통해 이뤄지는 소통과 교류는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40)</sup> 이렇듯 지역 문화 공동체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속력을 강화시켜 지역을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다른 그룹간의 불신의 장벽을 극복하게 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자들은 자심감은 물론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능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갖게 되어 새로운

37) 성남문화재단, 앞의 책, p.31.

38) 임학순, 앞의 책, p.99.

39) 성남문화재단, 앞의 책, p.118.

40)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사라져가는 공동체 관계를 문화라는 매개로 회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김세훈, 앞의 책, p.17.)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sup>41)</sup> 이에 미국에서는 비공식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연결망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지역개발에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앞서 논한 프로-암 활동 또한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간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다른 커뮤니티로 확장되어 다른 방면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두 가지 형태로 사회 자본을 형성한다고 하였다.<sup>42)</sup> 이를 위해 공공정책은 프로-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도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정부정책의 목표는 개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일부 프로-암 활동의 사회화를 권장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sup>43)</sup> 이렇듯 일상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문화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여가 생활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하여 지역과 직장, 동일 세대와 서로 다른 세대 사이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시켜 소통을 활성화하고, 유대관계 강화로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sup>44)</sup>

이처럼 자신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던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문화예술 동호회들은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다. 아마추어 음악 단체들의 무료 자선 공연활동이나 사진 동호회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이 가장 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호회의 발표활동은 대부분 회원들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한 비용으로 이뤄지며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발표활동을 관람하기 위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비용이 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동호회의 활동은 무료공연, 지역행사참여, 봉사활동 등과 연계되어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발전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 동호회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에 대해 공공영역에서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다.<sup>45)</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더 이상 사

4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2008, p.116.

42) Leadbeater & Miller, *The Pro-Am Revolution*, Demos, 2004, p.50.(정지원의 앞의 글 p.56. 재인용)

43) 정지원, 앞의 글, p.57.

44) 김세훈, 앞의 책, p.3.

45) 문화영역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문화집단의 증가로 이어지고 문화집단의 형태변화를 가져와, 자기가 좋아서 하는 문화 활동에서 남을 위해 베푸는 문화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며, 집단에 대한 공공차원의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이흥재, 앞의 책, 2005, p.27.)

적인 취미활동 이나 단순한 친목모임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아마추어들은 주로 동호회와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발표활동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 진입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3.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관한 이론적 근거

### 2-3-1. 예술분야에 대한 공공지원 검토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예술분야 일반에 대한 공공지원의 근거로 제시되는 이론과 반론을 살펴보자. 예술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지원과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보물(Baumol.W.J)과 보웬(Bowen.W.G)의 고전적 이론<sup>46)</sup>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제시되는 위의 이론은 문화예술이 집단적인 편익을 제공하며,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sup>47)</sup>이라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예술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닐 수 있는 직접적인 편익 이외에 집단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externality)가 존재하는 재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물과 보웬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기회불평등의 시정, 미성년자 교육과 함께 공공재 혹은 준공공재<sup>48)</sup>로서의 성격을 들었다.<sup>49)</sup> 이외에도 헤이블런(Heilbrun.J)과 그레이(Gray.C.M), 플레이(Fray)

46) 보물과 보웬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연예술 단체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공연예술-경제적 딜레마(Performing Arts-the Economic Dilemma)』(1966)라는 연구를 통해 공연예술이 지닌 노동집약적 서비스 특성에 따른 비용질병(Cost disease), 생산성 격차(Income Gap)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47) 비배제성은 일정한 비용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그 편익을 가져가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재화나 서비스의 성질을 말하고, 비경합성은 누군가가 그 편익을 누리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동시에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즉 한사람이 소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소비하더라도 그 몫이 줄어들거나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다. 추가비용이 '0'이라면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 전원에게 소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공재로 규정한다.(이토오 야스오 외, 『앞의 책』, p.36.)

48) 문화예술은 순수한 공공재라기보다는 사적 재화와 공공재 양쪽의 측면을 가진 준공공재로 취급된다.

49) 서순복,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개입과 지역문화정책의 정당화 근거」, 한국지방자치학회,

와 폼머레네(Pommerehne)와 같은 학자들은 국가 이미지 향상효과, 국민의 정서함양, 교육기회 제공, 후세에 물려줄 유산 등 예술이 지닌 가치와 사회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같은 집단적인 편익으로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정당화한다.<sup>50)</sup>

이토오 야스오(伊藤裕夫)는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문화예술이 지닌 기본적인 속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늘날 시민이나 지역의 독자성의 근거로서 발전적인 의의를 가지며, 문화예술 그 자체가 가지는 창의성과 상상력에 의해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sup>51)</sup>

보물과 보웬	헤이블런과 그레이	프레이와 폼머레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대예술이 국가에 초래하는 위신</li> <li>-문화활동이 주변에 비즈니스에 초래하는 이점</li> <li>-미래세대와의 이익</li> <li>-교육적 공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의 독자성 또는 위신</li> <li>-지역경제에의 공헌</li> <li>-미래세대와의 유산</li> <li>-자유로운 교육에의 공헌</li> <li>-예술에의 참여를 통한 사회 진출</li> <li>-예술적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에 따른 편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신 가치</li> <li>-유산 가치</li> <li>-존재 가치</li> <li>-교육적 가치</li> <li>-잠재 가치</li> </ul>

<표 3> 문화예술의 외부경제 효과성의 이론적 근거(서순복, 앞의 책, p.99.)

가타야마 타이스케(片山泰輔)는 정부의 예술지원을 자원배분의 적정화와 소득분배의 적정화, 경제적 안정화 등 3가지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중에서 ‘평등한 소득분배의 관점’은 “정부가 불평등한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고 저소득층에게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한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지역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up>52)</sup>는 견해이다. 가타야마의 주장은 문화 복지 측면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지원을 논할 때 주요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sup>53)</sup>

보물과 보웬은 공연예술 단체들이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공연을 지속하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1호, 2006, p.97.

50) 위의 글, p.98.

51) 이토오 야스오 외, 앞의 책, p.13.

52) 위의 책, p.40.

53) 서순복은 지방정부가 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원을 생각할 때, 이런 평등한 소득 분배적 관점은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지리적 편재성에 관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서순복, 앞의 글, p.104.)

여, 공연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관람객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으려면 ‘생산성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네처(Netzer) 역시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격차에 따른 문화예술 소비의 불균등이나 문화예술시설의 지역적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4)</sup> 이와 같은 논리는 중앙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 공공지원과 접근성 및 향유기회 확대라는 ‘문화의 민주화’ 방식의 문화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sup>55)</sup>

가타야마는 ‘문화예술에 대해 사람들이 정말 수요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예술에 공공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추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준 공공재라 하더라도 공적지원이 정당화되려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사람들이 자신이 소비하는 사적 재화를 줄이면서 까지도 문화예술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sup>56)</sup> 가타야마가 제시한 공공지원금의 원천인 수요자 측면의 견해는 예술분야의 정부개입을 논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예술을 생산하는 전문예술인들이 아닌 일반 소비자, 즉 수요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수요 측면에서의 또 다른 논거는 예술 공급자가 아닌, 예술 수요자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적 지원은 생산자인 예술가들에게 가는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예술지원의 목표가 예술소비의 형평성 증대에 있기 때문에 수요 측면의 지원은 공급 측면의 지원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sup>57)</sup> 이렇듯 예술영역에 대한 정부 개입과 공공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고급예술과 전문예술인 지원이라는 공급 측면과 평등권 확보와 접근성 확대라는 수요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sup>58)</sup> 예

---

54) 이흥재, 앞의 책, 2006, p.284.

55) 서순복, 앞의 글, p.105.

56) 이토오 야스오 외, 앞의 책, p.124.

57) 위의 책, p.126.

58) 공적지원을 통한 정부 개입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6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예술가들도 다른 직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립해야 한다. 둘째, 예술이 공적 지원을 정당화해 줄 정도의 사회적 효용을 증명할 수 없다. 셋째, 계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예술의 질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넷째, 정부가 대중

술분야의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친다. 가장 많은 반론은 공공의 지원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지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생력이 없어지며 창작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단체에도 적용이 된다. 정부와 문화예술 비영리단체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규제가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59)</sup>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표면상으로는 문화예술 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예술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간섭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 지원이 자본주의 이념에 위반되고, 정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화와 예술분야 전체의 자주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확장되어 전개된다.

경제학자들은 주로 예술분야에서의 시장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면, 이는 바로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는 뜻이라는 입장이다.<sup>60)</sup> 국가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 단체들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창조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문화부분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원액을 늘리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sup>61)</sup> 또한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고급예술을 지원하면 결국 그 혜택은 이를 주로 향유하는 고소득, 고학력층 등 문화예술 관련 엘리트층에 돌아가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sup>62)</sup>

공공지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의견 중에는 문화예술이 지닌 가치와 정부의 개입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기존의 이론들

---

의 미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줄 책임은 없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적 지원도 문화 관련 이익집단들의 로비 결과에 불과하다. 다섯째, 공적 지원의 혜택은 극소수의 문화 예술 관련 엘리트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여섯째, 정부가 선택한 예술지원을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정당화 시킬 정치·사회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정홍익 외,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pp.22~23.)

59) 정광호 외,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자원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2003, pp.127~149.

60) 구광모, 앞의 책, p.41.

61) 이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문화가 발전하리라는 기대나, 반대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문화가 쇠퇴하리라는 염려 모두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김정수, 앞의 글, p.388.)

62) 임학순, 앞의 책, p.74.

이 지닌 맹점을 지적하고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에 대한 필요성 제기도 바로 이러한 기존의 예술생산자로서의 전문예술인과 고급예술 중심의 공공지원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2-3-2. 아마추어 예술의 공공지원에 관한 이론적 근거

위의 문화예술의 공공지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전문예술 영역의 공공지원만이 학자들의 주된 논쟁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급예술과 공공지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은 거론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문화예술 공공지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순 수요자'의 개념을 넘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공공지원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작자로서의 수요자인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세계인권선언에서 규정한 문화적 권리, 엘리트주의와 상반되는 대중주의, 문화의 민주화에서 발전한 문화민주주의 등이 있다.

### 2-3-2-1. 문화적 권리(Cultural Rights)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논하려면 우선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그 의의를 규명해야 한다. 그 이론적 근거를 먼저 문화권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1948년 제정된 UN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7조<sup>63)</sup>에서는 최초로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를 인정했다. 비록 추상적인 차원에서 표현되기는 했지만, 세계인권선언에 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어 1966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International Conventi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제15조<sup>64)</sup>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요한 자유에 대한 존중을 약속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63) 세계인권선언 제27조 ①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64) 채택일 1966.12.16. 발효일 1976.01.03. 대한민국 적용일 1990.07.10.

세계인권선언에서 최초로 규정한 문화권에 대한 논의는 유네스코 제14회 파리총회의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Declaration of the Principles International Cultural Cooperation)<sup>65)</sup>’ 을 통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후 1976년 11월 26일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일반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공헌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life and their Contribution to it)’ 에 최초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명시되었다. ‘문화생활에의 참여’ 라 함은 ‘모든 단체들이나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 인격과 조화로운 삶, 사회의 문화진보를 완전하게 발전시킬 목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고, 전달 또는 활동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을 의미하며, 행동이나 활동평가는 물론 문화정책에 관계된 결정을 함에 있어 다른 사회동반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관련한 권고문 ‘Ⅲ. 기술, 행정, 경제, 제정 조치’ 의 ‘일치된 행동(Concerted action)’ 조항에서는, “창의적인 문화 활동이나 예술적인 비기관이나 비전문가적인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다양한 아마추어 활동들에는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sup>66)</sup>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예술적 창작(Artistic creation)’ 조항에서도 회원국이나 다른 특정 당국은 “아마추어 예술가 그룹들에게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서 비전문가와 전문예술인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sup>67)</sup>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통해 ‘모든 가능한 모든 지원’ 은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비전문 예술인과 전문예술인과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권고는 문화적 권리와 대중들의 문화생활 참여가 현대 국제 사회에서 정책적

---

65) 제1조 ①각 문화는 존중되고 보존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④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국민들의 예술, 문화적 향유,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뤄지는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의 공유, 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가능케 하는 것 ⑤세계 모든 지역사람들의 정신적, 물질적 수준의 향상에 있다.

6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번역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Concerted action** 7. Member States or the appropriate authorities should encourage decision action and co-operation both as regards the activities themselves and decision-making:(a)by paying special attention to creative cultural and artistic non-institutional and non-professional activities and by providing all possible support to amateur activities in all their diversity.

6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번역으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Artistic creation** 10.(h)give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assistance to groups of amateur artists and support co-operation between non-professional and professional artists.

으로 촉진되고 법 제도로써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것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고 있다. 이 권고가 채택된 1976년은 뒤에서 논의할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1976년을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문화정책의 영역에 진입한 원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유엔과 유네스코와 같은 세계기구가 권리로 인정하고 있듯이, 정부의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문화적 평등권과 예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sup>68)</sup>, 1972년 8월 14일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sup>69)</sup>에서도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하며, 학교와 직장에 문화예술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주도의 ‘문화헌장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문화헌장<sup>70)</sup>(2006년 5월 21일 공표)에도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예술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정책의 경우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민이며 정부나 행정이 주체가 되어 관리 지도를 행하는 다른 공공정책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한다. 정철현은 “문화예술은 국가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가치와 창의력에 의해 창조되므로, 국가는 개인의 가치판단과 정신활동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없으나 개인의 문화예술 영역 참가와 기회를 누구나에게 균등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71)</sup>고 하였다. 문화권을 보장하는

68) 대한민국 헌법(제9차 개정, 1987.10.29)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하여 정지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69)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의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및 직장에 학생, 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 이상의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70) 문화헌장 ②(창조, 참여, 향유의 평등한 권리)문화적 권리는 시민의 평등한 권리이다. 모든 시민은 계층, 지역, 성별, 학벌, 신체조건, 소속집단, 종교, 인종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⑧(예술과 학문의 자유원칙)예술과 학문은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며 사회의 지적, 감성적, 윤리적 발전의 토대이다. 시민은 누구나 그 능력과 재능에 따라 예술헌창작과 학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가 이룩한 창조적 성과는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⑩(국가의 책무)(나)문화 활동 지원의 책무-시민의 문화적 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시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시민적 역량의 기초이며 행복한 삶의 토대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개개인과 민간단체들이 전개하고자 하는 교육, 자기개발, 창작 등의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간 문화 발전의 격차를 힘써 줄여나가야 한다.

71) 정철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경제경영, 2008, p.39.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내면적인 정신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문화 활동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필요한 조건을 정비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2-3-2-2. 대중주의(Populism)

고급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이론이 엘리트주의(Elitism)라면, 아마추어 예술과 대중 예술에 대한 지원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이론이 대중주의이다. 엘리트주의란 예술창조와 예술향수, 전문가와 아마추어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입장이고, 예술의 질적 측면과 심미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대중주의에서는 예술창조와 향수에 있어서 접근기회는 균등해야 하며,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없고 누구나 예술창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엘리트주의는 예술적 우수성과 예술의 질적 수준을 지원의 근거로 삼고, 예술창조자와 소비자, 아마추어와 전문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따라서 주로 고급예술과 전문예술 창조자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며, 전문예술가에 의한 창작을 강조하는 생산자 지향의 시각에서 지원정책을 이해한다. 그러나 대중주의는 지식층이나 전문가 영역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에 대한 참여와 경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예술창조자와 예술소비자,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엄격하게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공공영역에서 지원 가능한 예술범위도 엘리트주의에 비하여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

구분	엘리트주의	대중주의
지원근거	예술의 우수성 예술의 질적 수준	대중예술 예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 예술적 다원주의
지원대상	예술 창조자와 소비자, 아마추어와 전문가, 고급예술과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구분	예술 창조자와 소비자, 아마추어와 전문가, 고급예술과 대중문화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음.
지원범위	고급예술과 전문예술 창조자	폭넓고 다양함.

<표 4>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비교

이에 따라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는 ‘예술의 질적 우수성 추구’와 ‘평등의 추구’라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된다. 현대에 들어서는 엘리트주의와 대중주의의 이분법적 구분은 그 경계가 희미해지게 되었고, 지원대상도 예술전문가에서 아마추어와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고 있다.<sup>72)</sup> 이렇듯 아마추어와 일반 시민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은 아마추어를 전문예술인과 구분하지 않고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대중주의 이론이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3-2-3.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대중주의와 유사한 맥락의 ‘문화민주주의’ 또한 일반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 개념은 1976년 유럽위원회의 문화담당 장관 회의를 통해 발간된 보고서 「문화민주주의를 향하여(Towards Cultural Democracy)」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문화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되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ing of culture)’를 살펴보아야 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대두된 적극적이며 평등지향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sup>73)</sup>

문화의 민주화는 모든 사람들이 문화를 공급받을 민주적 권리가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문화’란 전문예술인들이 창작한 고급문화를 말한다. 문화의 민주화 입장에서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고급예술을 보다 많은 대중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다. 지역마다 문예회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설립하거나, 박물관 무료관람, 사랑티켓, 문화바우처처럼 문화소외지역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개최하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 문화의 민주화를 표방한 대표적인 정책사례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정책 영역에서 말하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직접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 관람기회 확대’의 의미로 사용된다. 창작과 발표활동의 대상은 전문예술인이고, 일반시민들은 좀 더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전문예술인들이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직접 찾아가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공의 영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결국 문화의 민주화를 지향하

72) 임학순, 앞의 책, p.88.

73)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6권, 2003, pp.32~53.

는 문화향유기회 확대 사업에서 넓은 의미의 수혜대상은 일반국민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수혜의 대상은 공급자인 전문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인 것이다.<sup>74)</sup>

반면, 문화민주주의에서의 ‘문화’는 전문예술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를 포괄한다.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의 확산에 목표를 두지만,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또한 다양한 행정업무영역이 상호 교차되며, 노조, 연합회, 학회, 연구회, 동호회 등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의 민주화는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one)’를 주창하면서도 이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은 기본적으로 고급예술과 전문인들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one)’를 표방하며 문화수용자의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아마추어들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sup>75)</sup> 즉 예술창작활동은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participation)’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 정책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단위의 자생력과 기획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sup>76)</sup> 문화민주주의가 중시하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으로도 연계된다. 문화예술 활동은 지역발전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며, 아마추어 예술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 참여는 재미와 경험공유, 세대 간의 접촉기회 증가를 통해 주민을 끌어들이 지역에서의 일상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문화의 민주화에서는 전문예술인이 공공지원의 혜택을 받는다면, 문화민주주의를 통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민주주의는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명확한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시대적인 배경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서순복은 “개인은 소비자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의 영역에까지 기능을 하는 이른바 ‘프로슈머(prosumer)’의 역할을 한다.”<sup>77)</sup>고 언급하며,

---

74) 구광모, 앞의 책, p.65.

75) 위의 책, p.77.

76) 임학순, 앞의 책, p.89.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문화권 향유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로서의 문화생산자,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의 문화창조 가능성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78)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민주주의에서는 문화 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구광모는 “스스로 표현하고 소통함으로써 각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광범위한 예술 형태를 통해 다른 사회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를 허용하고 촉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79)이라고 하였다.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 전문예술인,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게 되는 아마추어 예술의 특성에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렇듯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두 관점은 누구나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적 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서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민주화는 우수한 취향에 합법성을 부여하여 기존 학계나 평론가들로부터 인정받은 고급예술을 보급하고 접근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즉 고급예술만이 향유할만한 좋은 예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민주주의자들을 대중주의자들과 칭하면서 형평성의 개념에 집착한 결과 ‘예술의 질’을 희생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문화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민주화 전략을 엘리트주의적이라 비판하고, 주체적인 문화 활동을 강조하는 문화민주주의가 더 중요한 문화정책 이념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0)

문화민주주의의 실천방안으로는 공동체의 문화적 활동에의 활발한 참여, 문화자원과 지원에 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민주주의적 정책 방향 하에서 문화예술 소비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객인 동시에 아마추어 예술가로서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를 권유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전략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과 작업장 등과 같이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곳에서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1)고 하였다. 또한 “문화민주주

---

77) 서순복, 앞의 글, p.98.

78) 위의 글, pp.98-99

79) 구광모, 앞의 책, p.79.

80) 임학순, 앞의 책, p.35.

81) 다양한 형태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것은 참여자에게 자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사이에서 인간관계의 훈련, 나아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 및 참여적 태도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고 하여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극복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한 문

의 구현을 위해 예술 활동들이 문화예술 생산과 일상적인 문화 활동들과 연결되도록 특별배려와 재정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시급하며, 직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생활예술 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 82)임을 지적하였다.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은 관련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학교행정, 사회서비스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결되며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83) 예컨대 2005년부터 본격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만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와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등 타 부처에서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타 부처와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다.

문화의 민주화	문화민주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확산</li> <li>-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li> <li>- 고급예술</li> <li>- 전문가 중심</li> <li>- 예술가 지향</li> <li>- 기관 제도 중심</li> <li>- 결과물</li> <li>- 하향식</li> <li>- 미적 질</li> <li>- 협의의 예술</li> <li>- 수동적</li> <li>- 접근, 기회 및 감상</li> <li>- 중앙정부 집중</li> <li>- 전통, 보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의 개발</li> <li>-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li> <li>- 아마추어예술, 대중예술, 실험예술, 대안예술 등</li> <li>- 아마추어 중심</li> <li>- 관객(일반인) 지향</li> <li>- 비공식/비전문가 조직</li> <li>- 생산과정</li> <li>- 상향식</li> <li>- 사회적 형평성</li> <li>- 광의의 예술</li> <li>- 능동적, 자발적</li> <li>- 참여, 경험</li> <li>-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행</li> <li>- 변화, 역동</li> </ul>

<표 5>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비교

종합해보면, 문화민주주의는 공공정책 영역에서 전문예술인 뿐만 아니라 주체적인 문화생산자로서 일반인,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2008, p.106.)

82) 위의 책, p.106.

83) 김경욱, 『문화재단: 아름다운 문화 거버넌스를 위하여』 논형, 2007, p.28.

### 제3장 지역문화재단의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 현황과 분석

광역문화재단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의 대표적인 방식은 정기공모 형식의 지원금 지원사업이다. 11개의 광역문화재단(2010년기준)에서 2010년 진행한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서울, 인천, 경기, 광주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관련 지원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외의 재단은 지역으로 이관된 문예진흥기금사업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에서 아마추어 및 시민 예술 활동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재단명	사업명		접수	선정	지원액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 예술지원	시민예술활동지원	233	97	255,500
		시민축제지원	49	21	262,000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	682	281	805,000
		기초자치재단	-	257	896,000
		시니어 예술 활동 지원	17	11	40,000
인천문화재단	시민 및 청소년 문화 활동		66	22	28,000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예술육성지원		938	552	1,470,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육성		258	135	640,000
	생활 속 예술활동지원		-	13	2,600
광주문화재단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		-	30	40,000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	157	566,000
	시민문화향수지원		-	66	143,000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706	336	1,812,000
	다원매개지원		69	37	157,000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	268	-
	생활예술진흥		-	67	-
전남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기금지원		-	623	1,007,000
대전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		461	286	956,000
	생활속예술활동지원		-	60	103,500
경남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지원		-	370	840,000

<표 6> 2010년 광역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단위:백만원)

이는 다시 신청단체(개인)의 세부사업 내용을 ‘생활’, ‘시민’ 등의 분야로 구분한 사례와, 단체나 세부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정 및 지원하고 있는 사례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광역문화재단 지원사업 특징은 ‘아마추어’ 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추어와 전문예술인을 포함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경기, 인천의 아마추어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구분	개별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통합지원	분류
지역	서울(시민문화예술지원) 인천(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경기(시니어예술활동지원) 광주(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	경기 강원 전남 경남	대전(생활) 부산(다원매개) 대구(생활) 제주(생활) 광주(시민)

<표 7> 광역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분류

### 3-1. 서울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3-1-1. 지원 사업 경과

서울문화재단(이하 '서울재단')의 시민참여 예술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의지는 “서울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게 한다.”<sup>84)</sup>는 재단의 비전에서부터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은 재단 설립 첫 해인 2004년부터 정기 공모 지원 사업과 일부 자체 기획사업<sup>85)</sup>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재단이 설립되면서 1994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되던 문예진흥기금사업(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었다.

84)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참조

85) 서울재단은 2004년부터 아마추어들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과 청소년 문화 예술 주체 양성을 목표로 한 ‘청소년 문화 벤처단’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자체 기획 사업들을 통해 출범 첫 해부터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한 것은, 예술지원정책 집행기구로서 지역재단의 역할이 기존의 ‘전문예술’ 지원보다는 ‘시민’ 지원에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서울재단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원효과를 제고하고자 ‘시민형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지원목표를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예술창작 활성화 및 수월성 제고’,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를 위해 일반 문예지원 공모사업을 개선하여 2005년부터 ‘시민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예술지원 사업들이 예술가나 문화예술 전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던 반면, 시민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서울시민의 생활 속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의 전문예술인 지원방식과 차별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액다건’의 지원방식을 적용하였다.<sup>86)</sup>

구분	사업명	신청건수	신청액	선정건수	지원액	단체평균	비고
2005	시민문화 예술지원	670	7,524	293	1,753	59.8	-문학, 미술분야 전문창작지원 포함 -축제분야 추가
2006		652	6,944	284	1,780	62.6	-서울 정체성 제고사업 우대
2007		834	-	275	1,770	64.3	-전문단체 시민문화향유사업 중심 -문화예술 동호회, 시민의 자생적 문화활동 지원 포함
2008		-	-	297	1,850	62.2	-문화소외계층대상 활동 우대 -지역문화시설 활용 무대
2009		생활속 예술지원	461	4,578	208	950	45.6
2010	시민예술 활동지원	233	1,552	97	255.5	26.3	-아마추어 동호회 중심 지원전환 -시민주체강조 -전문예술단체 지원 제한 -공공장소 발표, 지역사회 공헌활동 우대 -소액다건, 개별지원금 규모 축소

<표 8>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경과(2005~2010, 단위:백만원)

86)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백서 2004~2006』, 2007, pp.265~270.



또한 기존 문예지원공모사업의 장르기반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문화 향수기회 확대 및 시민 참여형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정책목표별 접근을 시도하였다. 2006년부터는 ‘서울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과 ‘시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구분해 중점방향을 재편했다. 재단 설립초기에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서울’이라는 지역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접근성 높은 생활 근거리권의 문화행사,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행사, 문화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교육성 사업, 시민의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과 같은 직접적인 시민참여사업 등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sup>87)</sup>

그러나 지원대상 신청과 선정은 사업목표별이 아닌 장르별<sup>88)</sup>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문학, 미술 장르는 ‘전문예술단체(개인)의 예술창작 활성화 및 수월성 제고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여 지원하였다. 지원 선정단체 발표시에도 장르별 구분방식을 따르고 있어 ‘시민의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과 같이 지원공고에서 예시로 제시된 분야의 사업에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목표를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서울시민을 위한 전문예술 단체의 활동 지원’과 ‘전문예술인과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한 전문예술단체 지원 위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 아마추어들도 지원신청은 가능했지만, 아마추어 중심의 사업은 아니었던 것이다. 재단 측은 이에 대해 다양해진 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지원하는 단체들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여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sup>89)</sup> 사업 초기에는 지원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단의 지원의도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는 현상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2006년 7월 1일에는 민선 4기가 시작되었고, 2007년 2월 1일에는 재단의 2대 대표이사가 취임<sup>90)</sup>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재단의 예술지원정책의 방향이 기금과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인해 중앙지원기구인

87) 서울문화재단, 위의 책, pp.275.

88) 무용, 연극, 영화, 음악, 전통예술, 문화일반, 문학, 미술 등 기존 전문예술 장르에 2005년부터 축제 부문이 추가되었다.

89)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백서』, 2007, p.23.

90) 안호상 2대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인터뷰에서 "1대 대표이사의 선택과 집중한 예술지원 목표를 지속하되, 공급자 위주의 문화에서 수혜자가 중심이 되는 문화로 바뀌어나가겠다."고 했다.(세계일보 2007.03.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관계,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적인 변화 등 외부의 영향에 따라 변해온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민선 4기를 맞아 개편된 재단의 전략목표에도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향수 확대’는 포함이 되었으며, 이 전략목표에 따른 12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문화예술 프로슈머 활동 지원으로 문화 참여 확대’가 제시되었고,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활동과 발표기회 제공을 지원’ 한다는 방침이 표명되었다.

2007년에는 지원수혜단체들의 자생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휴식년제도<sup>91)</sup>가 도입되고, 연 1회 진행되던 지원사업이 ‘전통’과 ‘문화일반’ 분야에 한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되는 변화<sup>92)</sup>가 있었다. 그러나 재단의 전략목표에도 불구하고 2007년과 2008년은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보다는 ‘시민문화향수기회 확대사업’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지원 대상 항목에 2006년까지 포함되어 있던 ‘아마추어 동호회’가 누락되었으며, 일부 심사평가항목에서는 전문예술법인을 우대하였다. 지원신청서 상에서도 2006년에는 단체의 법적 성격 항목에 ‘시민 아마추어 동호회’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8년에는 신청주체의 법적 성격을 개인, 단체(법인체, 비법인체)로만 구분하고 있다. 또한 당시에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아닌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을 알 수 있다.<sup>93)</sup>

특히 2007년과 2008년에는 ‘지원신청 분야사업’을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지원신청단체들이 지원사업의 성격과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타사업과 중복수혜가 안되므로 해당사업의 기본취지에 맞게 지원하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도, 일부 전문예술법인은 우대한다고 명시하여, 오히려 전문예술인들이 지원 분야를 선택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었다고 본다. 전문예술인들이 시민문예 지원사업에 선정될수록 일반 시민의 수혜 비율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2007년부터 재단 청사 및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공연하거나 전시하는 사업을 우대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

91) 동일한 단체가 3년 연속 지원수혜를 받은 경우 지원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계속 지원을 배제하여 지원수혜의 형평성을 지키면서 실력 있는 신진단체들의 진입이 수월하도록 한 것이다.

92) 2007년과 2008년 2년에 한해서만 진행되었다.

93) 2007년의 지원신청분야 예시에 ‘예술의 창작성 보다는 개인 및 제한된 단체 회원의 활동,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폭넓은 시민이 아닌 제한된 회원의 참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이에 해당함’ 이라고 명시하였다.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시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어 2008년에 발표된 서울재단의 ‘서울형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시민문예 지원사업은 예술단체의 일반 공연 발표활동 지원비중이 높았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활동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원사업 개선안’에 ‘시민들이 단순히 문화소비자가 아닌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직접 참여 또는 주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되면서, 아마추어 및 준전문예술 연합체의 발표활동과 시민을 위한 축제지원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사업구분	2008년	사업구분	2009년
시민 문예 지원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지원목표로 하였으나, 예술단체의 일반공연 발표활동 지원 비중이 높았음. -사업비(20억) -지원단체(300개) -평균지원액(600만원) -총 8개 장르(축제 포함) -축제분야 지원액(2억원)	지역 협력 형 지원 사업 → 정 기 공 모	-시민의 직접 참여 또는 시민문화향유기회 제공 사업 등 생활 속 예술지원 강화(아마추어 또는 준전문적 연합체 활동) -예술단체의 일반공연 배제(문화나눔 성격 사업은 지원) -1천만원 미만 소액다건 지원 -총7개 장르(축제 별도 지원)
			시민 축제지원 -시민을 위한 축제지원 확대(커뮤니티 축제 및 전문예술축제 포함)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예술표현활동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표 9> 200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개선 내용(서울시 보도자료 2008.11.24.)

이러한 일련의 시행착오와 개선의 과정을 거쳐 서울재단이 정기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94)</sup> 2009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던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94) 재단 담당자도 인터뷰 과정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전까지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지원은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단체들의 사업 지원’의 성격에 가까웠다. 하지만 2009년부터 큰 변화를 이루게 되는데, 2009년의 ‘생활 속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아마추어 단체 위주로 지원하기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아마추어’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은 그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원사업’과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사업’이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전화되어 서울재단에서 통합 운영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문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의 지원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생활 속 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원방향과 사업명을 변경하여 차별화한 것이다. 서울재단 예술지원사업의 전면개편은 ‘예술지원 4대 원칙’ 발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 문화재단 간의 업무분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단이 제시한 개선사항을 보면 그간 시민문예 지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생활 속 예술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방향’에 나타나 있다. ‘생활 속 예술지원’사업의 지원방향은 크게 ‘생활 속 문화클럽 활동 지원(of the citizen)’, ‘시민이 만드는 예술사회 지원(by the citizen)’, ‘시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for the citizen)’ 등 3분야로 정리되었다. 이 3가지 지원방향은 기존의 관행적인 장르별 구분을 벗어난, 보다 분명한 ‘사업 주체별’ 구분이라는 데에서 의미를 지닌다. 기존 사업의 지원 분야였던 ‘시민문화 향유기회’가 아닌, 생활 속 문화클럽 활동 분야의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 있는 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의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 것이다. 2009년부터는 공고에 ‘지원방향’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지원 신청시 ‘사업목표’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명시하면서, 신청단체들이 재단의 새로운 지원방향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도 ‘아마추어이거나 준(準)전문적인 단체의 일반적인 발표활동,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등으로 제시하여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특징을 ‘시민주체, 발표활동,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예년과 반대로 ‘전문예술단체 우대’가 아닌, 전문예술 단체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지역협회나 단체의 연례적 전시와 공연을 포함하나 이들보다는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문단체지원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신청의 주체를 ‘아마추어 동호회’로 명확히 규정짓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지원사업의 심사과정에서 배제된 사업을 보면, 재단의 지원방향과 지원 대상,

지원목표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업주체가 동호인인 경우라도 개인적인 활동, 친목성향이 강한 활동, 일반 정기발표회 등 공공성이 약한 사업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았다.<sup>95)</sup>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개인적인 목적의 사적인 활동’ 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시행 첫 해였던 만큼 재단의 의도와는 달리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이 상당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단 측의 홍보부족과 재단 정기공모사업에 처음 신청해 보는 아마추어 단체들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과, 전년도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를 예시로 홍보하는 방법 등이 제안되었다.<sup>96)</sup> 심사위원들은 아마추어들의 활동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신청단체들의 기획력을 높여 단순히 문화소외계층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도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sup>97)</sup>고 제안하고 있다.

서울재단의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결과 발표시 선정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심사평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재단의 지원 원칙을 준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9년부터는 모든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하고 익년도 지원신청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시민축제지원’ 사업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2008년까지 ‘시민문예지원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던 ‘축제’ 장르를 개별적으로 독립시킨 결과이다. 하지만 ‘시민축제지원’ 사업도 시민 참여 중심의 축제와 전문성이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up>98)</sup> ‘시민축제의 개념이

95) 예컨대 ‘몇 몇 동호인들끼리의 친목에 대한 것’,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원한 사업’, ‘개인이나 단체의 심포지엄 사업이나 서적, 도록 출간사업’, ‘기존의 독주회나 정기연주회와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거나 유료공연과 병행되거나 프로페셔널한 단체’ 등은 선정되지 못했다.

96) 심사평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제안이 많다.’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 자체가 널리 알려지면 해가 갈수록 의미 있는 사업자원도 많아지고 반향도 클 것이다.’, ‘소중한 기금인 만큼 보다 다채로운 응모가 가능하도록 폭 넓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한다.’ 와 같은 평이 있었다.

97) ‘아직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경향은 아쉬운 면이 있으나 차츰 정착 되어 감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예술가들이 아닌 자생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많이 지원해서 긍정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98) ‘문예지원의 행사성 사업을 별도로 평가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민축제 개념 명확화, 이질적 성격에 대한 평가 기준 세분화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축제 분야는 축제성, 커뮤니티, 자발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대상과 사업을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2009년 서울에서 시행될 문화예술축제사업’, ‘3년 이상 연속 시행했으며, 7개 이상 단체 참여가 확인된 축제’ 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 3-1-2. 2010년 지원사업 분석

2009년의 과도기를 거쳐 2010년에는 정기공모사업에 ‘시민문화예술지원’ 분야가 신설되어 ‘시민예술활동지원’ 과 ‘시민축제지원’ 으로 분리되면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지원공고에 ‘지원신청의 주체’ 항목을 포함하여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체인 비영리 동호회’ 로 신청자격을 제한하였다. 여기에 ‘2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 문화소외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 를 우선 지원한다는 항목이 추가 되었다. 실제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 와 우선지원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시민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지향하는 바와 지원대상이 더욱 분명해 진 것이다.<sup>99)</sup>

구분	시민예술활동지원	시민축제지원
지원 목적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서울시민이 만드는 창조문화도시 구현	-시민들의 아마추어 예술활동(축제) 진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발표 및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서울의 창의인구 확대에 기여
지원 방향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지역 문화중심의 특색 있는 시민축제 지원 -일회성 축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자생력 있는 시민축제 발굴 육성 지원 -우수 프로그램 연속지원 및 주민참여/문화소외계층 참여 확대방안 유도
지원 분야	-공연, 시각, 문학, 복합장르 등 문화예술 전반	-축제
지원 규모	-최저 2,000천원 ~ 최고 5,000천원	-최저 2,000천원 ~ 최고 35,000천원

99) 2010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사업 설명서 정리

지원 대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 서울에서 문화예술활동을 계획한 일반인 문화예술 동호회로서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문화예술 애호가들이 주체인 비영리 동호회.</li> <li>-단, 전업 문화예술인이 동호회 대표이거나 회원 중 일부로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시민이 동호회의 주 활동 회원일 경우 일반인 동호회로 인정.</li> <li>-우선지원 동호회 : 문화소의 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나 2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동호회</li> </ul>	-2010년 서울에서 시민축제 개최를 계획하는 아마추어 단체
지원 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에서 시행될 일반시민이 직접 주최하고 참여하는 사업.</li> <li>-1년 간의 동호회 활동을 2010년 12월까지 최소 1회 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발표, 세미나, 전시 등 사업별 적합한 형식 차용)</li> </ul>	-2년 이상 연속 시행하였으며, 5개 단체 이상 참여가 확인된 축제 혹은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서울 대표축제와 연계 가능한 시민축제 및 관련 프로그램
지원 제외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고등학생이 대표자로 있는 동호회</li> <li>-회원 소속기관(학교, 회사 등)의 공식 동호회로 정기적인 지원을 받는 동호회</li> <li>-전문/준전문 문화예술단체(인)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발표형 사업, 교육형 사업</li> <li>-각종 협회나 단체의 연례적 행사의 성격을 띠는 사업</li> </ul>	
심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활동실적</li> <li>-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li> <li>-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 향수 기여를 위한 사업 내용 및 계획의 우수성</li> <li>-사업예산의 충실성 및 타당성</li> <li>-신청주체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및 기대 성과</li> </ul>
심의 절차	-예비심사(신청서류 검토), 1차(서류심사), 2차(종합토론심사)	
	-심사위원:8명	-심사위원:6명, 2차 인터뷰 심사 추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금 사용항목 지정 : 대관료, 홍보비, 인쇄물 제작비 등 지정 항목만 집행 가능</li> <li>-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시스템(<a href="http://sfac.artskorea.or.kr">http://sfac.artskorea.or.kr</a>)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li> </ul>	

<표 10> 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지원사업

다시 말해, 2010년부터는 시민이 직접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목적은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 활성화’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 사업도 ‘발표, 세미나, 전시 등의 동호회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하여, 시민 참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금 사용 가능 항목을 대관료, 홍보비, 인쇄물 제작비 등으로 지정한 것도 아마추어 중심의 지원사업이 된 이후의 변화이다.<sup>100)</sup>

아마추어 단체 지원으로 사업의 성격이 명확해지면서, 2009년에 비해 신청건수와 선정건수는 50%가량 감소되었다. 개별지원금액도 전년도 456만원에서 263만원으로 줄어 소액다건 지원방향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2010									2009	증감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문학	다원	일반	합계	합계	
신청건수	17	6	64	56	26	22	14	28	<b>233</b>	461	△49%
선정건수	8	2	25	24	11	10	7	10	<b>97</b>	208	△53%

<표 11> 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상세내역

지원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민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고유의 공공성’, ‘공공성 활동 경력 위주의 활동실적’, ‘시민 참여 규모’ 항목을 추가해 심사에 반영하였다. 심사평을 보면 단체 선정시 ‘공공성’을 중시하여 사업내용 뿐만 아니라 소통의 요소, 관객과 공간의 관점도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이 가지는 ‘공공성’과 ‘사회 공헌성’과 ‘사업수행의 단체의 역량’이 지원단체 선정시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심사위원들도 재단의 지원방향과 규정에 따라 “지원의 목적과 대상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다.”<sup>101)</sup>고 밝히고 있다. 특히 2009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던 전문 혹은 준 전문예술단체나 예술가에 의한 발표형 사업, 시민 대상 교육형 사업들은 재단의 다른 분야사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권고하여, 전체 지원 분야를 재정비하고 각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업 공고

<sup>100)</sup> 서울문화재단 담당자는 “아마추어 단체들이 정산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예 쓸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그 항목만 지원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sup>101)</sup> 2010년 시민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 심사평 중에서(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시 지원주체를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단체들의 신청은 관례적으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02)</sup>

2010년 지원사업에서 단순 취미활동,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 학원, 개인교습소 등 개인의 영리활동과 연계된 발표공연, 각종 협회나 단체의 연례적 행사, 직장 동호회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동호회는 선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볼 때,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특성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서울재단은 공공지원 대상이 되는 아마추어 예술 단체와 지원 대상 사업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사업을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3년 이상 동일사업으로 지원한 경우라도 사업성과가 함께하는 시민이나 예술단체 자체가 사회적 공헌을 쌓아가고 있는 상태라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 중에서도 향후 공동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업과 사회공헌적인 요소가 강한 활동에 대한 공공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민축제지원’ 사업의 경우 2009년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보완되어 ‘시민축제’와 ‘예술축제’를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신청을 받았다. 이는 관(官)주도형 지역축제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에 기초하여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시민축제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단의 의도에 불구하고, 아마추어 단체에서 직접 축제를 기획해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최소 참여단체 기준이 2007년 3개에서 2008년과 2009년 7개로 증가했다가, 2010년 5개 단체 이상으로 다시 조정된 것을 볼 때, 참여단체 수를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일부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신청내역		선정내역	
	신청건수	신청금액	선정건수	지원금액
2009	55	3,262,101천원	24	450,000천원
2010	49	1,509,000천원	21	262,000천원

<표 12> 2009~2010년 서울문화재단 시민축제 지원사업 현황

<sup>102)</sup> “여전히 전문단체의 신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에 대해 접수 자체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심사평에서도 “몇몇 단체의 경우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방식과 질에 있어서 좀 더 성실한 준비가 필요한 점이 아쉬웠다.”<sup>103)</sup>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선정된 내용을 보면 직장인 동호회 연합축제 이외에는 분야별 ‘협회’ 등 예술단체에서 기획한 시민축제가 대부분이었다. ‘축제’는 활동 장르에 대한 전문성 외에 축제에 대한 전문성과 기획력, 참가 단체 간의 의견조율과 네트워킹 등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동호회간 네트워킹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연합형 축제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동호회가 축제기획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서울재단은 설립초기부터 ‘시민’에 초점을 맞춘 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시민과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방향과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시민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형태로 정착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공공영역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경기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3-2-1. 지원사업 경과

경기문화재단(이하 ‘경기재단’)은 1997년에 설립된 최초의 지역문화재단으로 설립초기부터 지역시민과 도민,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문예반 활동지원’, ‘문예기반시설 활용 아마추어 동호회 육성’, ‘동호회연합 축제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sup>104)</sup> 경기재단은 ‘문화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삼고, 시민 문화 주체 육성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 진행하면서 후속 지역문화재단의 선례가 되고 있다.<sup>105)</sup>

---

103) 재단 홈페이지 참조

104)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or.kr) 참조

105)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향수/참여기회 확대,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등 건강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 재단법이다.” (2010년 지원사업 설명서 참조)

경기재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아마추어 지원 관련 사업을 대상별, 주제별, 사업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진행하다가, 2008년 이후로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의 한 분야인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부 소규모 기획사업으로 진행되던 아마추어 예술 및 동호회 관련 지원사업은 2010년 시범사업으로 신설된 ‘시니어예술활동지원사업’만 남게 되었다.<sup>106)</sup>

사실 경기재단은 2005년 아마추어 예술 활동 분야를 공식적으로 분리하기 이전부터, 전문예술단체 지원위주의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추어 동호회를 일부 지원해오고 있었다.<sup>107)</sup> 실제로 선정단체 명단에 까치사 진동아리(2000), 안양주부예술단(2001) 등 동호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지역신문의 관련 기사를 보면 정기공모 지원사업에 아마추어 동호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sup>108)</sup>

예술장르별로 구분하던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영역을 ‘창작활성화, 문화향수기회확대,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 확대’ 등 3분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2003년 사업공모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창작 의욕 고취 및 활성화 도모’라는 목표에 따라 도 단위 예술단체 정례행사,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연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전문예술단체의 사업을 위주로 지원했다.

<sup>106)</sup> 재단 담당자는 그 배경에 대해 ‘내부적으로 문화나눔팀, 교육팀, 예술진흥팀이 문예지원팀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사업들도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내용 개편에는 재단 내부 사정이나 행정적인 이유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sup>107)</sup> 타(他)지역에서도 문예진흥기금으로 일부 아마추어 단체를 지원해 왔다.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아마추어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신청자격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재량에 의해 아마추어 동호인 예술단체를 기금심외과정에서 선정하여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선정단체의 자격시비가 제기되어 왔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2010, p.335.)

<sup>108)</sup> ... 주목할 만한 것은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문화재단 박희주 기획부장은 지원방침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우선하여 문화수용자인 일반 도민의 측면에서 지원한다.”며 “일반 도민들이 이와 같은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수원일보 2001.11.29.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 아마추어 동호회도 지원가능’ 중에서)

구분	신청건수	지원건수	장르수	총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1998	834	584	11	1,789,300	3,063
1999	1,095	465	13	1,500,000	3,225
2000	952	568	12	1,500,000	2,640
2001	1,056	495	12	1,200,000	2,424
2002	957	643	12	1,403,000	2,181
2003	912	556	12	1,500,000	2,697
2004	1,050	509	14	1,500,000	2,946
2005	1,490	469	11	2,198,600	4,687
2006	1,354	447	9	2,320,000	5,190

<표 13> 1998~2006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지원사업 지원현황(단위:천원)

경기재단은 2004년부터 업무목표 중 하나로 ‘지역 문화예술 아마추어리즘 육성’을 내세우게 된다.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시민 문예운동 확산에 따라 아마추어 동아리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온라인 등 다변화된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참여를 배가할 수 있는 활동, 그룹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일반공모 지원사업을 크게 전문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민의 문화예술 감상 및 교육기회 확대사업(10억)’과 일반인의 문화예술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 참여기회 확대사업(5억)’ 두 분야로 나누어 비교적 상세하게 지원 대상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sup>109)</sup>

구분	분야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비율	총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2005	도민의자생적문화활동지원	317	118	25.16%	300,000	2,542
2006	아마추어문화예술활동지원	258	112	15.06%	360,000	3,214

<표 14> 2005~2006년 경기문화재단 정기공모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 세부내역(단위:천원)

<sup>109)</sup> ‘도민의 문화예술 직접참여 기회 확대사업’의 대상은 1. 도민의 자발적인 동호회 활동을 위한 전문문화예술인의 수용교육 및 실기교육, 2. 전문문화예술인의 지도 아래 행해지는 발표회 전시회 및 책자 발간, 3.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에 의한 초청공연 및 전시회 등이다.

2005년부터는 정기공모 지원사업에서 ‘도민의 자생적 문화 활동지원’ 분야를 별도로 구분하여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과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시작(118건, 3억원)했다. 이어 2006년에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12건, 3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정기공모지원건수의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 비중이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2007년부터 ‘생활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문예진흥기금 1차 정기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문화예술인 분야는 ‘선택과 집중’ 지원(신청대비 28% 지원), 생활문화예술분야는 ‘소액다건’ 지원(신청대비 40%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다. 서울재단과 동일하게 아마추어 예술지원에 대해서는 ‘소액다건’의 지원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신청건수	선정건수	선정비율	총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2007 (생활문화예술분야)	전체 1295 생활 379	전체 392 생활 151	전체 30% 생활 40%	2,356,000	3,400
2008	593	358	60	1,404,900	3,916
2009	661	404	61	1,650,900	4,086
2010	682	281	41	805,000	3,112

<표 15> 2007~201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단위:천원)

\* 2009년에는 4개, 2010년에는 7개 기초재단 이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007년 심사평을 보면, 전문예술인은 배제하고 ‘아마추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아마추어 단체들의 경우 ‘순수성’과 ‘열정’, 사업의 취지에 맞는 지역, 지역주민과의 연계, 지역 문화발전 기여도를 선정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출판’, ‘자족적인 잔치’, ‘과도한 예산’, ‘상업성’ 등의 내용은 공공기금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분야별 차이는 있으나 사업 기획력이나 프로그램 구성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2008년부터는 정기공모지원사업의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에 사업대상,

사업주체, 사업유형의 구분이 없는 포괄적인 지원방식이 적용되면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도 완전히 통합되기에 이른다. 통합 첫해에는 지원사업 공고시 재단에서 아래와 같은 지원금 기준표를 제시하였다. 이 기준표는 2008년 공고에만 수록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을 아마추어 단체, 혼합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추어 단체의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 선정단체 명단은 장르나 대상 구분 없이 시군, 사업명, 단체명, 대표자명 등으로만 분류하여 공고 하였다.

지원영역	아마추어단체			혼합예술단체			전문예술단체			
	기타시민단체									
등급	A	B	C	A	B	C	A	B	C	
출판활동	100	200	300	200	300	400	300	400	500	
전시활동	200	300	400	300	400	500	400	500	600	
공연 활동	음악	300	400	500	400	500	600	500	600	700
	무용	400	500	600	600	700	800	1,000	1,200	1,500
	연극	400	500	600	600	700	800	1,000	1,200	1,500
종합행사	300	400	500	400	500	600	500	600	700	

<표 16> 2008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금 기준표(단위:만원)

2009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첫째는 2008년까지 기획공모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던 사회문화예술교육활동지원, 다문화활동지원, 작은축제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이라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의 지원사업이 되었다. 두 번째는 부천, 안산, 의정부, 하남 지역은 기초자치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3-2-1. 2010년 지원사업 분석

2010년에는 2009년 사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새정부 주요예술정책의 4대 기

조에 따라 ‘간접지원’과 ‘선택과 집중’이 강화되었으며, 기초자치재단으로의 이관이 7개시로 확대되었다.<sup>110)</sup> 2010년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의 목표는 각 시·군별로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 확대와 문화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크고 지원범위가 넓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업목표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임을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우수창작활동을 제외한 모든 창작활동과 발표활동’으로 타 재단에 비해 매우 단순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사업’ 항목의 사업주체 중 ‘아마추어’, ‘동호회’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인들은 지원가능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제로 이 사업에는 ‘우수작품 창작·발표’ 신청단체를 제외한 전문, 준전문가, 아마추어 단체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다.<sup>111)</sup>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모니터링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되지만,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은 모니터링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는 차이가 있다. 전문예술단체라도 ‘지역’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편, 축제와 시민문화향유사업 등 분야와 대상을 총 망라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금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타 재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전체 선정단체별 평균지원액은 311만원이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재단은 지원신청대상 아마추어 단체의 성격이나 분류 항목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원사업 신청안내 책자의 ‘지역문화 예술활동 사업 계획서 예시’에 제시된 단체 설명을 참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타합주단으로서 음악활동이 많지 않은 지역에 아름다운 현의 하모니로 지역문화발전과 음악 향유기회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아마추어로 구성되었으나 꾸준한 역량 강화와 의지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타 합주단으로써 음악의 질적인 부분에도 완성도 높은 공연을 수행하고자 한다.”<sup>112)</sup>

이와 같은 사례는 재단 측에서 제시한 것을 볼 때, 공공지원의 대상으로 보고

---

<sup>110)</sup> 2010년 지원사업 설명서 참조

<sup>111)</sup> 재단 담당자는 “전문예술인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로 우수창작활동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아마추어에 비중을 두고 있고 아마추어를 더 선호한다.”고 밝혔다.

<sup>112)</sup> 2010년 지원사업 설명서 참조

있는 아마추어 예술단체는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꾸준히 역량을 강화하여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마추어’ 임을 유추할 수 있다.

항목	내 용	비 고
사업목표	-각 시/군별로 자생적인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 -문화예술의 생활화, 다양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시/군, 지역강조
신청자격	-경기도에 소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	개인지원 불가
신청제외	-국/공립 시/군립 및 그 산하 출연단체 -학교, 학원, 교습소, 언론사, 종교기관 또는 그 소속단체 -접수일 현재 이전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단체	다른 지원사 업과 동일 기 준 적용
지원대상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활동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목적별(문화예술교육, 작은 축제, 다문화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 -단체 소재지가 아닌 사업이 실시되는 사업장소를 기준으로 심사	사업주체에 ‘아마추어’ 포함
지원규모	-13억원, 최고 한도 1천만원	최고 한도 높음
심사기준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효과, 추진능력 등 -각 시/군별로 다양한 장르, 유형,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세부 심사기 준 미공개
심사방식	-1차 행정심사 : 신청 자격 및 시/군, 사업영역 분류심사 -2차 서류심사 : 권역별 심사위원회가 시/군별로 심사 ※ 인터뷰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심사위원총35명 심사평 미공개

<표 17> 2010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내용

지원공고와 선정공고를 통해 경기재단은 예술장르나 신청주체보다는 지역별 배분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공고에도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113)</sup> 재단 담당자는 입상 여부와 활동내용,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 여부도 심사시 고려한다고 하였다. 하

113)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만 지원공고와 심사기준에는 ‘사업목적, 신청자격, 지원대상의 적절성 여부’ 항목만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우대한다는 설명은 없다. 경기재단의 경우 2008년 사업통합 이후 ‘심사평’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체 선정기준을 가능하기 어렵다. 이는 경기재단이 31개 시/군 지역을 총괄하는 대규모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시니어예술활동지원사업’은 경기재단이 정기공모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을 통해 지원대상별 접근을 시도했음을 보여준다. 공모대상과 내용, 기준을 보면 ‘주체적인 문화활동’, ‘사회환원’, ‘지역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총 17개 단체가 신청해서, 이중 11개 사업을 선정했으며, 총 4,000만원 규모에 개별지원금은 ‘300~400만원’으로 타 지원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심사평을 보면 시범사업과 공공자금 지원임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공공성에 기초하여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내 용
사업목표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대상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어르신 집단(소그룹, 동호회) 및 단체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적 공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어르신 단체
지원내용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동시에 사회적 환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어르신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내역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
지원규모	30,000천원
선정방식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 2~3명이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선정기준	단체의 활동실적 및 문화예술 활동 목적, 의도 지역의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기여도 및 지속 가능성

<표 18> 2010년 경기문화재단 시니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살펴보았듯이 경기재단은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과 대상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르별 구분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 설립 초기의 문예진흥기금 정기공모사업과 유사한 형태이다. 경기재단은 설립 초반부터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지원을 시도해 왔으며, 오히려 그 시도 끝에 대상과 분야를 세분화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14)</sup> 점차 지원대상과 사업을 세분화하고 있는 서울, 인천재단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시점에서는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마추어’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재단 담당자도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고 지원신청서를 보면 거의 구분이 가지만, 현재의 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는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장기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연령대 구분을 도입한 ‘시니어예술활동지원사업’은 경기재단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정책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재단이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일부 이관한 것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8년 강릉문화재단을 시작으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의 설립이 이어짐에 따라, 광역재단이 지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민 직접 참여형 사업은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경기재단으로 사업을 이관 받은 경기지역 7개 기초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광역재단의 공모사업을 대행하는 선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변형하여 진행하고자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시행 2년차를 맞은 부천, 안산, 의정부, 하남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먼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전문예술인보다 아마추어의 활동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과 연속지원일 경우 지원 단체의 자생력을 고려해 지원금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갖고 사업을 진행했다. 심사평을 보면 실제로 아마추어나 동호회의

---

<sup>114)</sup> 재단 담당자는 “2000년대 중반 ‘아마추어’에 관심과 의욕을 갖고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으나, 아마추어를 구분해서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은 정책의 자의적 판단이었다.”고 하였다. 합창단과 합창대회를 지원하고, 2006년에는 아마추어 음악분야 현황조사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특히 아마추어 음악 활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연극 활동, 취미 활동보다는 지역공헌 활동 동호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확실한 방향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경기재단과의 역할 분담을 위해 전문예술인들의 창작발표 지원은 경기재단의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에 신청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문화예술교육, 작은 축제, 다문화활동, 공공예술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향 설정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sup>115)</sup>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아마추어 단체 활성화와 전문단체의 창작 지원’이라는 두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sup>116)</sup> 지원금 한도도 전문 문화예술 단체 창작 활성화(500~1,000만원), 전문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활성화(200~1,000만원),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100~300만원)로 구분하고 있다. 지역기반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하는 타 재단들과는 달리, 의정부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하에 타 지역거점 단체도 포함하여 선정하였다.<sup>117)</sup>

부천문화재단은 ‘지역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18)</sup> 사업 지원 분야를 지역문화사업(주민향수기회)과 6대 문화사업(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전통산업, 복사골 예술제)으로 분리하여 심사하였는데, 이에 따라 아마추어 활동보다는 시민향유형사업, 지역문화산업진흥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부풀리기’로 인한 예산 항목상의 문제와 6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단체가 많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6대 문화사업’은 지역성을 반영하고자 한 의도라 하더라도, 지역문예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과는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으므로 제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소액다건 지원방식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선정단체수를 줄여 신청금과 지원금의 차이를 줄이려 했다는 점도 광역재단과의 차이로 하겠다.

전체 지원규모(4,000만원, 11건)는 작지만 하남문화예술회관은 2010년 4개의 아마추어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공고에도 ‘아마추어 동호회 활동 활성화 지원(최대 300만원)’ 분야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전문공연예술단체가 기획하는

115)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ansanart.com](http://www.ansanart.com)) 참조

116) 지원공고를 통해 ‘아마추어 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상에서 문화예술 향유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이고, 프로 단체 지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창조와 함께 그 작품을 지역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117)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http://www.uac.or.kr)) 참조

118)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bcf.or.kr](http://www.bcf.or.kr)) 참조

사업은 ‘우수창작활동지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안산’과 동일하다. ‘문화예술 활동은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며, 예산지원 없이도 자력으로 문예활동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심사평을 통해 심사시 단체의 ‘자생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심의기준은 문화 예술적 우수성(2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25점), 기대가치(30점)로,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주민의 문예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위원의 조정안에 신청단체가 동의하면 지원하는 조건부 지원(2건)으로 선정된 단체도 있는데, 이를 통해 공모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개별신청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sup>119)</sup>

올해 처음 사업을 이관 받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예술표현활동’과 ‘시민문화활동’으로 지원 분야를 구분하여 아마추어 동호회를 지원했으나, 심의절차를 살펴보면 예술표현 활동의 공연, 시각, 전도예술 분야에 한해 행정심의, 전문가 서류심의, 인터뷰 심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0)</sup> 이는 우수창작과 동일한 심의절차로 사실상 우수창작 지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양문화재단은 사후지원(2건)을 시범운영하였으며, 장소변경조건(2건), 예비(2건) 등 6건의 조건부 지원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sup>121)</sup> 정기공모사업과는 별도의 자체기획사업으로 차별화하려는 시도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견할 수 있다. 화성은 정기공모사업(5,900만원, 15건) 이외에 앞장의 공공지원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동호회 DB를 구축하는 등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동호회 지원을 재단의 중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sup>122)</sup>

이상 기초 자치단체 문화재단들의 2010년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기초재단들도 사업주체가 아마추어 동호회인 시민 참여형 활동보다는 전문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찾아가는 시민 향유형 사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지원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기재단과 달리, 기초재단들은 ‘개인’도 지원해주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시민의 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개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사업내용 자체가

119) 하남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hnart.or.kr](http://www.hnart.or.kr)) 참조

120) 안양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www.ayac.or.kr](http://www.ayac.or.kr)) 참조

121)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http://www.artgy.or.kr)) 참조

122)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www.hcf.or.kr](http://www.hcf.or.kr)) 참조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사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성과 공공성은 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공공지원대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소지가 있다.

시/군	기관명	설립 년도	지원 건수	지원 액수	특 징
부천	부천문화재단	2001	52	170,000	지역성 강조, 소액다건 개선 지원분야:지역문화사업, 6대 문화사업
안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007	24	83,000	총 92건 신청, 아마추어 우선지원 원칙 전문단체는 경기 '우수지원' 유도
의정부	의정부예술의전당	2007	26	73,000	총 62건 신청, 타지역 거점 단체 지원
하남	하남문화예술회관	2007	11	40,000	총 24건 신청, 조건부지원 도입 전문단체는 경기 '우수지원' 유도
고양	고양문화재단	2004	43	238,000	조건부지원
안양	안양문화예술재단	2009	86	233,000	아마추어 동호회 분류, '개인' 비율 높음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2008	15	59,000	'동아리' 관련 개별 사업 진행
합계	-		257	896,000	-

<표 19> 2010년 경기지역 기초 자치재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현황

한편 광역재단의 이관을 받은 동일한 사업이지만,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하려는 시도들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초문화재단들은 지역문화시설 운영과 관리를 주 업무<sup>123)</sup>로 하고 있어서, 정기공모사업을 운용하고 자체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sup>124)</sup>

<sup>123)</sup> 7개의 재단 중 3곳-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 하남문화예술회관-은 재단명이 문예회관명과 같으며 시설운영이 주된 업무 중 하나이다.

<sup>124)</sup> 광역재단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기초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자체는 시설위주이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3-3. 인천문화재단의 사례와 특징

#### 3-3-1. 지원사업 경과

인천문화재단(이하 ‘인천재단’)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특징은 포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재단과 달리 사업목적별, 사업주체별로 세분화하여 ‘아마추어 예술동호회의 발표활동’을 구분하여 지원<sup>125)</sup>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서울재단과 경기재단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했지만, 인천재단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을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천재단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사업주체별, 사업목적별 구분과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한 고민은 2005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의 개선과정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구분	사업명	신청건수	선정건수	지원금액	평균지원	비고
2005	생활예술발표및보급지원	-	7	33,800	4,828	꽃, 수석 등 생활예술분야 지원
2006	시민문화활동활성화지원	140	83	186,800	2,250	아마추어 동호인 영역 신설 전문예술과 장르별 통합심의
2007	시민문화활동활성화지원	137	66	154,400	2,339	시민주체와 전문예술사업 구분, 발표활동 지원
2008	시민및청소년문화활동	43	36	39,790	1,105	지원사업 개편 문화나눔활동과 동호회 지원 분리, 청소년으로 대상 확대
2009	시민및청소년문화활동	74	42	45,000	1,071	전문성, 공공성, 사회공헌 부각
2010	시민및청소년문화활동	66	22	28,000	1,272	사회공헌 활동 구분

<표 20> 2005~2010년 인천문화재단 아마추어 예술활동 지원사업 경과(단위:천원)

2004년 12월 출범한 인천재단은 인천광역시로부터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을 이관 받아 2005년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중 한 분야

<sup>125)</sup>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 참조

었던 ‘생활예술발표 및 보급지원<sup>126)</sup>’ 사업은 생활소품 공예품 전시, 동호인 회원 전시회와 같은 생활예술 전시사업과 생활예술 경연대회, 지역 답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2006년부터 진행된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사업과는 다소 성격이 다를 수 있다.

2006년에는 아마추어 동호인에 대한 지원 영역을 신설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육성지원금 지원사업 개선안’을 내 놓았다. 인천재단은 예술지원사업의 3대 지원목표를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시민 문화 활동 활성화,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로 설정하고, 이중 ‘시민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향수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문예술단체(인)의 사업과 문화예술 동호회(아마추어)의 체험형 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sup>127)</sup> 즉, 이 당시 ‘시민 문화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문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사업과 문화예술 동호회가 주체가 되는 사업 두 영역을 포괄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과 참여형·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액다건’으로 지원하며,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영역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지원방침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는 ‘아마추어 동호회의 동인지 발간 사업, 취미 활동 단체 및 아마추어 단체가 주최하는 전시 활동, 아마추어 동호인 발표활동, 아마추어 동호인의 공연’은 ‘시민 문화 활동 활성화’ 영역에 응모할 것을 명시해 놓았다. 반대로 시민 문화 활동 활성화 사업에는 전문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전문예술인 분야에 지원할 것을 명시해, 사업별 중복지원이나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혼란의 소지를 줄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재단은 아마추어 예술 지원사업에 전문예술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지원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sup>128)</sup> 특히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사업수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집행 증빙 영수증 제출’을 생략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이외에도 신청자격 기준 완화, 휴식년제 폐지, 심의위원 명단과 총평 공개 등이 2006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6년 지원

---

126) 전통예술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 속에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분야 및 레저문화와 관련된 사업지원을 통한 건강한 시민문화 정착을 목표로 했다.

127)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5주년 백서』, 2010, pp.248~249.

128) 인천문화재단, 위의 책, p.251.

사업은 전문 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장르별로 심의가 진행되었다. 사업 분야별로 심의방식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문창작활동 분야와 동일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그 취지가 희석된 것이다.

2007년에는 지원제도 개선에 따라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민들이 주체 및 대상이 되는 동호회 활동’ 과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 및 프로그램’ 으로 보다 구체화 되었다. 지원사업 안내문에는 ‘전문예술단체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 결정액은 소액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 을 공지하였다. 전문예술인의 신청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아마추어들의 활동이 우선 지원대상을 사전에 알린 것이다. 또한 2007년부터는 시민컨설팅단, 젊은 비평그룹 운영 등을 통해 전년도 사업 결과 자료를 심의시 참고로 활용하고, 사업별 지원 금액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했다.<sup>129)</sup>

아마추어의 예술 활동을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인식은 2007년 지원사업 심사평에 잘 드러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 공공지원에 대한 인천재단의 인식과 지원원칙을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현장에는 적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원방침을 정립하기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원방향	공공지원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의 예술적 욕구 해결은 개인 부담 원칙</li> <li>-순수 동호인 단체 활동 우선 지원</li> <li>-상업적인 목적이 강한 사업 배제</li> <li>-꽃꽂이, 수석, 용변,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도 사안에 따라 문화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li> <li>-너무 폐쇄적이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의 경우 감점</li> <li>-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소액을 다양한 사업에 나누어주자는 취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발적인 문화예술 취미(아마추어 활동)지원</li> <li>-완벽한 지원 기준 마련은 불가능</li> <li>-동호회 사업비 전액을 공적 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은 동호인의 정신과 합치하지 않음</li> <li>-지원비에 의존하는 것은 사업의 순수성을 오히려 훼손함</li> <li>-동호인 활동은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li> </ul>

<표 21> 2007년 인천문화재단 시민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평 요약

129) 인천문화재단 2007년 지원사업 설명서 참조



2008년에는 지원사업이 전면 재정비되면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분야도 ‘생활 속 예술 강화’라는 지원목표 아래 ‘문화나눔 활동’과 ‘시민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사업으로 세분화 되었다.<sup>130)</sup> 기존의 ‘시민 문화활동 활성화’ 사업을 사업주체와 목적별로 구분하여 전문예술인 및 단체는 ‘문화나눔 활동’, 일반 시민은 ‘시민 및 청소년 문화 활동’에 신청하도록 한 것이다. 재단은 지원신청 안내문을 통해 ‘순수 일반시민과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문화예술 동호회 및 모임, 아마추어 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수동적인 문화예술 향유가 아닌 능동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생활화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원의도를 밝히고 있다.<sup>131)</sup>

개편을 통해 인천재단의 지원사업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과 유사한 방향으로, 즉 ‘예술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들이 사업주체가 되는 발표활동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가게 된다. 즉 기존의 공공 지원사업 영역에서 존재하던 사업주체와 대상과 영역을 전문예술인과 단체가 주관하는 시민 문화예술 향유에 초점을 맞춘 사업(문화나눔 활동지원),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사업(시민 청소년 문화 활동지원),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기획사업)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시민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사업의 주체는 다시 직장인 동호회, 일반시민 동호회, 청소년 동호회로 구분되었으며, ‘지원 분야’를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아마추어 동호회(동아리) 발표활동,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중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했다. 세부사업의 유형은 자체 발표회와 나눔행사(2007), 공연, 전시, 축제형태(2008)에서 공연, 전시, 축제, 책 발간 형태(2010)로 점차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 단체와 세부사업의 내용을 파악하여, 차년도 사업진행시에 반영해 왔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문단체와 아마추어의 경계에 있는 단체, 혼합형 단체, 준(準)전문단체들의 지원영역은 ‘시민’이 아닌 문화나눔 활동사업으로 구분하였고 지원금 범위도 ‘시민’보다 높은 500만원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단체들도 상당수 문화나눔 활동사업에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해당사업 심사평에는 다른 지원분야보다 대상의 폭과 수준이 상대적으로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대한 확고한 기준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나 내용면에서 아마추어 성격이 강하면서 주관단체의 내부행사 위주 사업은

130) 인천문화재단, 위의 책, p.253.

131) 인천문화재단 2008년 지원사업 설명서 참조

우선 제외’ 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 문화와 개인적인 취미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단순한 동호회 내부 사업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는 의견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 전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132)</sup>

사업시행 첫 해인 2008년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은 신청건수(43건)가 적었고, 이에 따라 선정율(36건, 83.7%)이 매우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sup>133)</sup> 동일단체의 이중 신청, 사업의 장소가 인천이 아닌 경우, 학교가 수행하는 형태의 활동, 신청 서류 미비 등이 탈락 사유로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고, 재단 측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아마추어 동호회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동아리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보다 단체 또는 학원 등을 매개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매개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청소년 동아리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예산결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사업 진행 2년차인 2009년도에도 ‘이중지원, 동아리의 자주적인 사업수행보다는 전문단체가 수행하는 형태의 활동, 사업의 구체성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지원 동호회들의 기획력과 전문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공공적인 면과 문화나눔 성격을 지닌 아마추어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처음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34)</sup> 이는 지원사업 초기와는 달리 지원단체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참고로 인천재단이 2010년부터 동호회 활동 사업 분야 중 하나를 ‘시민문화예술 동호회 발표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회공헌 성격의 발표활동이 증가했으며 이를 분리해서 파악할 필요성을 인지했음을 의미한다. 2009년의 지원공고와 심사평을 종합해 볼 때 재단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의도는 시민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지역내 더욱 많은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인천 문화예술 활동의 발전을 기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sup>132)</sup> 2008년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심사평 참조(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sup>133)</sup>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발표문 참조(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sup>134)</sup> 심사평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기획의 참신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적 성격과 문화나눔 및 확산에 열의를 갖는 동아리도 눈에 띄어 시민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였다.” 고 하였다.

### 3-3-2. 2010년 지원사업 분석

2010년에는 기존의 사업체계가 유지되면서 지원영역과 대상사업만 일부 조정되었다. 최종 선정건수는 22건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으며,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100~150만원 선에서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인천재단은 2008년 이후 단체별 지원 금액을 평균 120만원 선으로 유지하고 있다.

지원공고에는 각 사업별 지원대상영역이 전년도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sup>135)</sup> 앞서 말했듯이 2010년부터 대상사업을 ‘시민 참여형 또는 체험형 문화예술활동’,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발표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으로 세분화한 것은 동호회들의 ‘사회공헌 활동’, 즉 ‘공공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0년 선정된 단체 중 ‘발표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 속하는 사업은 전체 22건 중 절반인 11건에 달한다.

구분	내용
지원목적	-시민 및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풀뿌리 문화 활동을 활성화
지원대상	-시민 참여형 또는 체험형 문화예술 활동(100~200만원 내외)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발표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100~200만원 내외)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100만원 내외) ※자부담 비용 제한없음
신청자격	-성인 또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인천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예술 동호회
심의기준	-사업수행을 통한 자생적 활동의 가능성 -사업수행자(단체)의 수행 역량 -행정심의, 서류심의
유의사항	-시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동호회, 아마추어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다건’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예, 백화점문화센터) 활동은 지원불가 -중/고 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그룹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멘토(지도교사) 1인 이상을 지정, 지도교사가 신청 대표자가 되어야 함 -대학 동아리의 경우 지도교수나 학교장의 추천서를 필히 제출

<표 22> 2010년 인천문화재단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고

<sup>135)</sup> 2010년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한편, ‘축제형 사업’의 경우 문화나눔 활동 사업 분야에서 전문예술축제와 시민문화제로 분리하여, 축제관련 전문예술단체들이 주관하는 사업을 선정했다. ‘축제’는 ‘시민’ 지원 사업과 달리 행정심의회와 서류심의 외에 축제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젠테이션 형태의 인터뷰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재단의 ‘시민축제지원’ 사업과는 사업 주체 면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2010년 사업의 지원공고와 심사평을 통해 나타난 인천재단의 지원 의도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생활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 활동을 직접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sup>136)</sup> 인천재단은 지원 단체 선정시 ‘공정성’과 ‘형평성’ 이외에도 ‘단체의 수행 역량과 사업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지원금을 받아서 개별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만한 역량을 지닌 단체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또한 ‘동아리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과 열의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 재단이 지원하는 동호회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활동에 자신감과 열의를 갖고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동호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원분야	2009		지원분야	2010	
	신청	선정		신청	선정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23	16	시민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2	2
아마추어 동호회(동아리) 발표활동	33	18	시민 참여형 또는 체험형 문화예술활동	18	5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 발표활동 및 사회공헌활동	35	11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18	8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11	4
총계	74	42	총계	66	22

<표 23> 2009~2010년 인천문화재단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분야 선정결과

<sup>136)</sup> 2010년 시민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 심사결과 발표문 참조(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한편,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 최종 선정된 단체는 총 4건(18%)이며, 신청건수도 전체 66건 중 11건(16.6%)으로 시민 활동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로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이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과 함께 활동에 대한 권장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견해를 통해서도 경기재단과 마찬가지로 노년층의 문화 활동 참여가 정책대상으로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자를 바꾸어 중복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신청자들이 재단의 지원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신청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지원기관에서는 취지에 맞는 지원신청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 제4장 지역문화재단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개선방안

‘지역문화재단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개선방안’을 위해 지원대상, 지역연계 및 교류,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지원기관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아마추어 개념의 재정립, 아마추어 단체의 역량 강화, 발표공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참여 증대, 전문예술인과의 연계 및 교류 확대, 사업대상별 지원방식의 세분화, 중앙 지원기구와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지원사업 운영과정의 재조정, 사후관리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 등 총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4-1. 지원대상의 역량강화

#### 4-1-1. 아마추어 개념의 재정립

먼저 공공지원 대상으로서의 아마추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기관들은 지원사업 진행시 ‘아마추어’라는 단어를 사업명에 포함하지 않거나 전면내세우지 않고 있다. 지원신청 대상에 아마추어 동호회 혹은 시민 문화예술 동호회라고만 명시하는 식이다. 이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이 다양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마추어’라는 단어에 내재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공식적인 사용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37)</sup> 이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아마추어를 비전문적이고 수준이 낮다고 보는 사회적인 인식 탓이다. ‘아마추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은 ‘아마추어 같다.’는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마추어 같다.’는 ‘프로답지 못하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의 수준을 무시하거나 비하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스테빈스의 정의에 따르면 ‘아마추어’는 취미영역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

<sup>137)</sup> 영국에서도 "아마추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예술 활동의 질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와는 상충되게 단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실력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DCMS, 위의 책, p.10.)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오히려 본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아닌 경우, ‘아마추어’라고 칭할 때 존중의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마추어’를 규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공공영역에서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기존의 사회적 편견과는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지원 사업의 경우 아마추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수준과 질적인 면은 차치하고, 공공영역에서부터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 4-1-2. 아마추어 단체의 역량 강화

공공지원 대상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지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아마추어 단체들을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공공지원을 받으려면 수혜단체들도 그만큼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혜단체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공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단체들은 지원을 해주는 재단의 입장과 지원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 단체는 지원해줄 만큼 활발히 활동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사업의 주체가 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sup>138)</sup>는 재단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결국 아마추어 단체들의 몫이다.

이를 위해 아마추어 단체들은 재단이 제시하는 사업목표와 지원사업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납세자인 시민에 대해 보조금의 목적인 정책이념과 목표를 실현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sup>139)</sup> 먼저 지원사업 목표에 맞춰 ‘지역성’과 ‘공공성’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양식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추어 지원사업의 경우 전문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처럼 예술의 질과 수월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활동 내용’과 ‘사업내용’이 심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무조건 재정지원을 늘려달라고 하거나 지원금이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만 지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sup>138)</sup> 재단관계자 회의에서 사업담당자들은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의 긍정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주 토로한다.

<sup>139)</su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8, p.135.

지원을 신청해야 할 것이다. 신청금액도 심사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산내역을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인 선에서 요청해야 한다. 예술 활동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아마추어 단체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확률이 높고 교부신청서 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잦은 프로그램 변경과 사업포기는 아마추어 예술지원에 대한 지원기관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단체들도 공공영역에 진입하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적인 영역에서 회원들끼리 예술 활동을 즐기는 수준에서 한 단계 향상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 회원들 간의 역할 분담도 분명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재단은 아마추어 단체들을 지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지역사회공헌과 봉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인정받을 만큼 실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재단의 입장에서 지원신청단체를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 4-2. 지역연계 및 교류 활성화

### 4-2-1. 발표공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참여 증대

공공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원기관들의 사업목적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수혜단체들도 일반 시민들과 활동내용을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공공지원을 받는 아마추어 단체들의 발표내용은 일반 시민에게로 확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족과 지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 수혜단체들의 발표장소로 지역 내 문화시설, 실내·외 공공장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지원 영역에서는 이미 지역문화공간에서 개최하는 활동을 우대하고 공원, 지하철 역사처럼 일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강화하여 연례행사성의 동호회 내부 발표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시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나눌 수 있는 발표활동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원사업 수혜단체들의 활동이 지역문화시설을 활용하거나 공공장소 혹은 최소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개최되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비록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아마추어 단체의 발표현장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하철, 공원과 같은 일상의 공간에서 열리는 아마추어들의 예술 활동은 일반 시민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는 예술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 유발과 예술분야의 신규관객 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아마추어 단체의 입장에서 공공장소를 활용할 경우,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관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정식시설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행사에 필요한 장비나 공간 사용협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과 활동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아마추어 단체들의 활동 목표와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재단의 지원의지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표장소로는 지역 내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문예회관과 같은 전문예술 분야를 위한 전용시설도 활용될 수 있다.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회관 개방은 공모나 축제형식의 연합 공연을 통해 가능하다. 평소 아마추어 단체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공간일수록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며, 발표현장을 찾는 일반 관객들에게도 전문공연장과 시설이 보다 친숙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sup>140)</sup>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은 재단과 수혜단체 모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서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심사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우대해야 할 것이며, 이 내용은 지원사업 공고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 중에서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사회 공헌활동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혜를 원하는 시설이나 단체와 매칭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아마추어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경기재단은 2010년부터 문화예술인 능력기부 매칭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경과 검토 후 지원사업을 통해 검증된 일부 아마추어 단체로까지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혜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참여회수를 의무

---

<sup>140)</sup> 예를 들어 아마추어 공연 단체 연합축제 ‘원터 페스티벌’은 평소 아마추어에게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 대전문화예술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 지역 아마추어 단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2010, pp.339~340.)

사항으로 넣는 방안은 수혜단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숙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141)</sup>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나 봉사 활동 모두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공공영역에서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아마추어 단체들이 지닌 기본 속성인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4-2-2. 전문예술인과의 연계 및 교류 확대

아마추어 예술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전문예술인들의 활동 영역도 넓어져, 문화 예술 저변이 확대된다는 논리는 아마추어 예술 지원배경을 논할 때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인들은 전문예술인들과 교육과 고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현실을 살펴보아도 아마추어 단체들이 전문예술인들에게 지도를 받고 이들과 일부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42)</sup>

아마추어 단체와 전문예술인이 공공자원을 통해 상호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항목에 전문예술인 관련 항목을 포함하거나, 지역예술인 DB를 활용하여 아마추어 예술 단체와 교류를 원하는 전문예술인과 매칭을 해주는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전문예술인들의 아마추어에 대한 교육과 지도 뿐 아니라, 아마추어 예술 단체들을 또다른 ‘수입원’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연계해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도자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

발표행사에 전문예술이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아마추어의 발표내용이 우선이라는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 행사 규모가 아마추어 단체의 수용범위를 넘게 되거나 과도한 사례비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행사의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아마추어 단체들의 발표활동에 전문예술인들이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추어 예술단체로서는 전문예술인과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공유했다는 만족감이 생길 것이고, 프로그램 구성도 상대적으로 풍성해져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예술인들은 새로운 집단과의 교류가 생기고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 환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41) 성남문화재단 ‘문화공헌 프로젝트’ 참여클럽의 21.8%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회수가 많아 부담이 된다."고 답했던 조사결과가 있다.(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9, p.48.)

142) 영국의 아마추어 단체들은 연간 125만 파운드를 전문예술인 고용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CMS, 앞의 책, p.36.)

## 4-3.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합리화

### 4-3-1. 사업대상별 지원방식의 세분화

아마추어 단체의 지원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실력과 체계를 갖춘 일부 아마추어 단체만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다. 단체 선정 기준이 높아지고 선정단체 수가 줄어들면 전문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원단체 사이에서 반발이 생기거나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재정지원의 대상이 아닌 아마추어 단체와 동호회에게는 간접지원방식으로 공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sup>143)</sup> 이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성격별, 예술참여 활동의 유형별로 지원방식을 다르게 가져가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학습과 교육은 문화예술교육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시설 등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한 차례 정도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종료될 수 있는 활동들이 서울문화재단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사례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관련 강좌 수강 이후 동호회 결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모임 공간 등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지역에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공공지원의 주체는 교육과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나 지역기관이 되고, 시민들은 이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지역 내에서 생성되어 활동 중인 문화예술 동호회를 대상으로는 연습과 모임 공간지원을 중심으로 장비 지원, 매개인력 지원 등의 지원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활동이 안정기에 접어든 아마추어 단체들을 대상으로는 공모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발표공간지원, 전문예술인 연계 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원 등의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재단의 사례에서처럼 지역기관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동호회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광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게 되는 연계구조가 이상적이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추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재정

<sup>143)</sup> 대전문화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지역문예진흥기금 사업에서 경력과 역량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생활예술단체들에 대한 공연 및 전시를 지원해주어, 일정 창작능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전 생활 속 예술 활동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2010, p.338.)

지원은 연계구조 내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지원방식이 되는 것이다.

지원사업의 다양화와 세분화를 위해서는 각 예술장르별, 지원대상별, 연령대별, 지역별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문화소외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그동안 지원영역에서 소외되어 온 경향이 있는 은퇴노년층, 대학생, 직장인을 포함한 본업이 있는 시민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sup>144)</sup> 특히 해외사례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후 취미생활 참여 및 봉사활동 참여 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145)</sup>

#### 4-3-2. 예술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위상 정립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 단위로까지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중앙의 대표지원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책영역에서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광역문화재단들의 기초자치단체로의 사업 및 권한 이관에 대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마추어 예술관련 지원은 기초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처럼 지역범위가 넓고 지역간의 격차가 있는 재단에서는 지원수요가 많은 공간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파악되었다.

공공지원의 사례 조사를 통해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아마추어 동호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공공장소 활용, 지역 동호회 간 교류와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 등의 측면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간략하게나마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을 이관 받은 경기지역 기초문화재단들의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신청단체들의 세부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는 등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보였다. 이러한 지역밀착형 사업은

---

<sup>144)</sup> 유럽에서는 특히 정년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마추어 문화예술 행위가 자신의 시민성을 확인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금 생활자들에게는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이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재사회화 가능성을 한다.(심보선 외, 앞의 책, p.56.)

<sup>145)</sup>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통계청 기준)는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며,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해오다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2010.12)’에 따르면 42.3%는 노후에 취미생활을 하고 싶고, 16.8%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소규모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전문화, 세분화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정지원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역할 분담 차원에서 광역문화재단에서는 아마추어 단체가 지원사업의 주체가 되는 정기공모 위주의 재정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기초문화재단에서는 발표공간, 연습공간, 매개활동 등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을 광역문화재단이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재단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관 받은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한 분야로 아마추어 예술 단체 지원사업을 특성화하여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기금 조성 과 예산 확보를 통해 재원을 다양화하여 재단 자체의 기획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영역의 중복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앙기관에서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관련한 정책방향 설정과 전국 단위의 조사와 연구를, 광역자치단체는 아마추어 단체 재정 지원사업, 기초자치단체는 아마추어 단체 간접지원 및 일반 시민 예술 참여활동 지원사업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만을 기준으로 할 때 전문예술인, 아마추어 단체, 일반시민에 대한 지원이 예술지원 기관 간에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으므로 중앙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 4-4. 지원기관 체계화

### 4-4-1. 지원사업 운영과정의 재조정

재단의 현 지원사업 운영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단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해 지향하는 바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여 신청단체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재단이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업목표를 숙지하지 못한 신청단체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사업목표를 확실하게 전달하지 못한 지원기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원기관에서는 각각의 지원사업별로 지원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사업공모와 신청안내시 상세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비단 아마추어 지원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재단의 사업목표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처럼 다분히 추상적인 면이 있다. 특히 문화정책의 목표로 자주 제시되는 ‘삶의 질 향상’은 측정지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문구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sup>146)</sup> 지원사업 목표는 지원신청 단체들이 세부사업을 구상하는 기준이 되므로, 지역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성화된 사업목표를 수립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매년 사업의 지원대상과 기준이 변경되어 지원신청 단체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연 1회 진행되는 정기공모 사업의 접수와 마감 시기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 재단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을 반영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역문화재단이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사업 규모와 내용이 매년 변하지 않도록 중장기 전략을 설정해서 지원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부 혹은 외부사정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작년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사전에 안내를 해서 지원단체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마추어 단체들이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에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을 신청주체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아마추어 대상’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고, 이는 앞에서 말한 공공지원 대상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될 것이다. 교육활동, 매개활동, 향유활동과 같은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경우, 이는 사업의 주체가 주로 ‘전문단체’나 ‘준전문단체’가 되겠지만 재단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면 신청자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재단이 제시한 지원사업의 목표와 기준에 따라 해당단체에서 판단하고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재단의 지원사업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아마추어 단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육성하는 지역기관과

---

<sup>146)</sup> 예술 지원사업의 목표는 보통 구체적 실측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히 추상적인 어휘들로 표현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이 과연 경기도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김성수, 앞의 글, pp.175~177.)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주로 축제지원이나 매개활동 분야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원신청대상과 사업유형을 포괄하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는 ‘주체’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마추어 동호회들이 주체가 되는 지속적인 예술참여 활동과 전문예술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일시적인 감상형 향유활동은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라는 정책적 지향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신청서상에 사업목적, 기획의도 등 유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입해야 하는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지원’은 ‘단체들의 지원신청’과 ‘선정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원’, ‘사업’은 ‘재단의 지원사업’과 ‘신청단체들이 기획한 세부사업’의 두 가지 의미로 중복 사용되어 혼란을 준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와 예술지원 관련 용어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추어 예술 지원사업에 전문예술인 지원사업과 동일한 신청양식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신청 서류의 구성이 명확하고 간결할수록 아마추어 단체들의 지원신청 과정과 재단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마추어 지원 분야 중 ‘축제’ 지원사업은 아마추어 단체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성 이외에 축제기획력과 단체 간의 네트워킹 능력까지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단체가 연합하여 참여하는 축제의 경우 행사규모와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본업이 아닌 아마추어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힘든 점이 많다.<sup>147)</sup> 재단에서 아마추어 단체들에게 축제를 직접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공공자원을 빌미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축제’ 분야는 축제기획사 위주로 선정되고 있어 ‘아마추어 단체들이 주최하는 축제’를 직접 지원한다는 사업목표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진행 주체로 구분하기 보다는 축제의 주인공이 시민인 시민참여형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sup>147)</sup> 경기문화재단의 2007년의 ‘아마추어 문예동호회 연합 예술제 지원사업’ 심사평에 “아마추어 동호회가 직접 나서서 이웃 동호회와 교류, 협력하여 네트워크 행사를 기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추슬러서 활동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에도 힘이 부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재단에서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 시민 동호회와 아마추어 단체들이 참여하는 축제나 대회를 주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있다. 공모를 통해 시민축제에 참가할 단체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 시민축제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 아마추어 단체에게는 명예로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 4-4-2. 사후관리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

수혜단체들은 항상 심사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지원기관에서는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평과 심사지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원사업 공고시 심사기준을 상세히 공개하면 신청단체들이 재단이 지원사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항목과 단체 선정기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추어 단체들은 지원 후의 성과와 결과물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혜단체 중 지원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거나 결과물이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지원신청단체들에게 사례집을 배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운영중인 ‘직원 참관제’와 ‘모니터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겠다. ‘우수사례’는 공공 지원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들의 차년도 사업기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원 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본다. 재단 인력의 업무량과 순환근무 등으로 지원 이후의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상 지원 건수, 지원총액, 발표회수, 관람객수와 같은 수치만으로 사업을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원 후’ 수혜단체의 활동과 경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사업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수혜단체 입장에서의 지원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혜단체 대상의 조사결과 ‘자부심’과 ‘인지도’와 같은 심리적인 면에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수치상의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성과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측정체계가 요구된다.<sup>148)</sup> 나아가 아마추어 예술 단

148) 문화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은 중앙의 예술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체의 활동과 이에 대한 공공지원이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작업도 지역문화재단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수혜단체들도 공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혜단체들의 인식대로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 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근거 없이 지급되고 사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는 불만이 있지만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 지원사업은 그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재단 담당자들도 정산절차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수혜단체들도 이 점을 이해하고 비록 소액일지라도 보조금 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그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집행과 정산절차 간소화에 대한 문제는 전문예술인들로부터도 끊임없이 지적되던 사항이지만 쉽게 개선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최근 들어 예술지원금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재단 측에서도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지원사업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 만큼 재단은 해당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들이 양질의 내용으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재단의 고객은 모든 시민이다. 수혜단체 뿐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지원을 신청했던 단체들은 그간 축적된 지원신청자 명단을 활용하여 재단의 고객으로 관리해야 한다. 재단은 시민과 지원대상 단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재단에서만 진행중인 온라인화가 확대되면,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된 DB를 활용하여 지원 신청단체 및 수혜단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단에서는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아마추어 단체들이 직접 하기 힘든 홍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현재 웹사이트와 재단 발간물을 통해 선정단체 소개와 행사내용을 공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과 활동을 나누고 싶어하는 수혜단체들의 의도를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마추어 단체의 홍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가지고 있으나 그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히려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대상이 명확하므로 시민 모니터링, 지역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것도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양효석, 앞의 글, p.105.)

## 제5장 결 론

예술지원 4대 원칙을 주창한 현 정부의 정책은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간 관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기공모를 통한 전문가 중심의 ‘직접지원’ 사업이 점차 시민 중심의 ‘간접지원’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시민문화·지역문화 활성화라는 미션의 수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호응하는 것이다.

문화복지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으로 문화를 통한 감수성 증진과 창의성 제고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예술을 창작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이러한 중심변화는 향유자를 대상화시켰던 과거의 선연적인 정책에서, 단순히 감상하고 소비하는 것을 넘어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슈머, 즉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주체의 구체적 사례로 파악하고자 하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은 지금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스테빈스는 ‘진지한 여가생활’을 하는 아마추어의 개념, 리드비터와 밀러는 ‘프로-암’에 가까운 전문성을 지닌 아마추어 예술의 개념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들 개념을 토대로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공공영역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덧붙여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의 증가, ‘대중주의’에 대한 새로운 조명, 문화의 민주화에서 ‘문화민주주의’로 인식 확대 등은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고히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대상은 지역문화재단 중에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이 활성화된 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 의미를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 적용 가능한 운영방안을 지원대상, 지역연계 및 교류, 지원방식 및 지원체계, 지원기관 등의 범주로 나누었다. 각 범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아마추어 예술 개념의 재정립, 아마추어 예술 단체의 역량 강화, 발표공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참여 증대, 전문예술인과의 연계 및 교류 확대, 사업대상별 지원방식의 세분화, 중앙지원기구·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의 역할 분담, 지원사업 운영과정의 재조정, 사후관리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 등 총 8가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마추어 예술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능동적인 시민문화를 형성하고, 그에 기반한 창조적인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있다. 위에서 제시한 8가지 개선방안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문화재단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건들이다. 하지만 단지 지원기관의 정책적 의지나 사업의 변화만으로 앞서 제기한 목표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원정책에 관한 비전이 필요하다. 그 비전은 해당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을 담아내야 하기에 일반화보다는 특수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아마추어 예술단체들은 창의적인 열정과 활동으로 문화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실천은 철저하게 지역과의 연계 속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들은 창조적인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의 아마추어 예술 활동의 지원은 이미 정책적 관심의 대상을 넘어 확장 단계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마추어 예술 활동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작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추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고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가치는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양한 공공영역에서 수행되는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문화재단의 직접 지원사업만으로 그 범위를 제안한 본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나 기초재단 단위에서 진행되는 지원사업과 직접 지원사업 외에 진행되는 간접 지원사업(공간지원, 장비지원, 매개자지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충실히 진행되면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장르별, 연령대별 세분화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고토 카즈코, 『문화정책학』, 임상오 역, 시유지, 2004
-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 김경옥, 『문화재단\_아름다운 문화 거버넌스를 위하여』, 논형, 2007
- 김세훈, 『문화클럽 조성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김세훈·조현성, 『문화복지 중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 김주호·용호성, 『예술경영』, 김영사, 2001
- 라도삼 외,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민인철, 『광주광역시 청소년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 분석』, 광주발전연구원, 2009
-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김영사, 2010
- 윤소영, 『공동체 활동 관련 사례분석 및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이토오 야스오 외,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이흥재 역, 역사넷, 2002
- 이호영, 『문화예술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박영사, 2005
- 이흥재, 『문화정책』, 논형, 2006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 임 호 외,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006
- 전병태 외, 『예술의 지원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 정선기·문옥배, 『대전광역시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08
- 정순복, 『예술과 문화복지』, 예전사, 2007
- 정철현, 『문화정책과 예술경영』, 서울경제경영, 2008
- 정철현, 『문화연구와 문화정책』, 서울경제경영, 2005
- 정홍익 외, 『문화행정론』, 대영문화사, 2008
- 조부근, 『문화선진국의 문화정책과 문화외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속원, 2007
-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 □ 학위논문

조미령, 「한국강유정,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사업 분석: 서울,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을 중심

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대중, 「자발적 시민예술 공동체 활성화 방안」,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김보름, 「공공부문에서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완수, 「지역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대구광역시의 주요 공공지원사업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김홍남, 「지역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박윤정,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연구: 성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 전문사과정 논문, 2009

서양희, 「일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신현일, 「공공 문화재단 현황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양효석, 「한국 지역문화예술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광역단위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유현도, 「문화적 권리의 개념 및 관련 법률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병배, 「지역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정희, 「대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이형복, 「지역문화재단의 운영방안연구 : 성남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원준호, 「지방문화예술 공공지원 사례분석 연구: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의 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활동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

-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정지원, 「한국 미술계의 전문적 아마추어(Pro-Am): 비정규 교육기관 소속 화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조병열,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운영시스템 연구: 대전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한선미, 「지역문화재단 역할 정립을 통한 전북지역 문화재단 발전방향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 한정중,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황소희, 「문화예술 수용단계별 문화향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 학회지

- 김경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제6권 제2호, 2003
- 김남국,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세계인권선언에서 문화다양성 협약까지」, 한국정치학회, 『국제정책논총』, 제50집 1호, 2010
- 김정수, 「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제20집, 2008
- 서순복,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1호(통권 15호), 2007
- 서순복,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문화정책과 문화민주주의」,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심보선 외, 「문화사회학적 견지에서 바라 본 문화예술 경영의 시론적 고찰: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문화와 사회』, 제8권, 2010
- 임학순, 「문화공간의 아마추어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지역사회단체와의 동반자 관계 형성에 관한 연구: 문화의 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제1집, 2001

정광호 외,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자원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2003

전수환, 「실행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예술의 육성: 성남문화재단 사례」,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제13집, 2008

## □ 연구보고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아마추어 음악 활성화 방안 연구」, 2006

\_\_\_\_\_ , 「경기도내 아마추어 음악단체 활동 조사」, 2006

\_\_\_\_\_ , 「경기문화재단 백서」, 2008~2010

문화체육관광부, 「새정부 주요 예술정책」, 2008

\_\_\_\_\_ , 「2009 문화자원봉사 실태조사」, 2010

\_\_\_\_\_ , 「200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백서」, 2010

\_\_\_\_\_ ,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8~2010

\_\_\_\_\_ , 「국민여가활동 실태조사」, 2008~2010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백서 2004~2006」, 2007

\_\_\_\_\_ , 「서울문화재단 백서 2007~2008」, 2009

성남문화재단,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 2006

\_\_\_\_\_ , 「사랑방 문화클럽 발전방안 연구」, 2007

\_\_\_\_\_ ,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2007

\_\_\_\_\_ ,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8

\_\_\_\_\_ , 「성남시민 문화참여활동 실태조사」, 2008

\_\_\_\_\_ , 「2단계 5개년 창조시민, 창조공간, 창조도시」, 2009

\_\_\_\_\_ , 「세계문화클럽 포럼 자료집: 자발적 예술 활동과 문화공동체 활성화」, 2009

\_\_\_\_\_ , 「문화도시 포지셔닝 전략 수립 및 실행 프로그램 개발」, 2010

\_\_\_\_\_ , 「지역문화재단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자료집」, 2010

예술경영지원센터, 「Creative 포럼 2010: 예술지원 정책과 트렌드 전망」, 2009

인천문화재단, 「2009 인천문화 지표조사 연구」, 2009

\_\_\_\_\_ , 「2010 동아시아 문화진흥기관 심포지엄 자료집: 동아시아 연대와 시민문화의 재발견」, 2010

\_\_\_\_\_ , 「인천문화재단 5주년 백서」 , 20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중의 예술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 2008

\_\_\_\_\_ , 「생활 속의 문화클럽활동 지원방안 세미나 자료집」 , 2008

\_\_\_\_\_ ,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한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 2008

\_\_\_\_\_ ,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지원사업 운영방안 연구」 , 2008

\_\_\_\_\_ ,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2009 포럼 자료집」 , 2009

\_\_\_\_\_ , 「예술정책의 현안과 대안모색: 정책으로 답하다」 , 2010

\_\_\_\_\_ , 「2009 지역협력형사업 평가보고서」 , 2010

\_\_\_\_\_ , 「전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재단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2010

## □ 외국문헌

Charles Leadbeater & Paul Miller , *The Pro-Am Revolution, Demos*, 2004

DCMS, *Our Creative Talent: The Voluntary and Amateur Arts in English*, Art Council England, 2008

Robert Stebbins, *A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1992

## □ 웹사이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 href="http://www.arko.or.kr">www.arko.or.kr</a>	대전문화재단 <a href="http://www.djfca.or.kr">www.djfca.or.kr</a>
서울문화재단 <a href="http://www.sfac.or.kr">www.sfac.or.kr</a>	경남문화재단 <a href="http://www.gncf.or.kr">www.gncf.or.kr</a>
경기문화재단 <a href="http://www.ggcf.or.kr">www.ggcf.or.kr</a>	부천문화재단 <a href="http://www.bcf.or.kr">www.bcf.or.kr</a>
인천문화재단 <a href="http://www.ifac.or.kr">www.ifac.or.kr</a>	고양문화재단 <a href="http://www.artgy.or.kr">www.artgy.or.kr</a>
강원문화재단 <a href="http://www.gwcf.or.kr">www.gwcf.or.kr</a>	안양문화예술재단 <a href="http://www.ayac.or.kr">www.ayac.or.kr</a>
제주문화예술재단 <a href="http://www.jcaf.or.kr">www.jcaf.or.kr</a>	성남문화재단 <a href="http://www.sncf.or.kr">www.sncf.or.kr</a>
광주문화재단 <a href="http://www.gjcf.or.kr">www.gjcf.or.kr</a>	화성시문화재단 <a href="http://www.hcf.or.kr">www.hcf.or.kr</a>
부산문화재단 <a href="http://www.bsfc.or.kr">www.bsfc.or.kr</a>	안산문화예술의전당 <a href="http://www.ansanart.com">www.ansanart.com</a>
대구문화재단 <a href="http://www.dgfc.or.kr">www.dgfc.or.kr</a>	의정부예술의전당 <a href="http://www.uac.or.kr">www.uac.or.kr</a>
전남문화예술재단 <a href="http://www.jncf.or.kr">www.jncf.or.kr</a>	하남문화예술회관 <a href="http://www.hnart.or.kr">www.hnart.or.kr</a>



##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학미술사학과	학 번	10111342	과 정	석 사
성 명	한글: 모 상 근    한문 : 牟 相 根    영문 : Mo,Sang-kun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529번지 삼진빌라 2동 501호				
연락처	revolutionmo@naver.com				
논 문 제 목	<p><b>한글 :</b> 아마추어 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p> <p><b>영문 :</b> On the support policy of local cultural foundations for vitalizations of the amateur cultural and artistic groups.</p>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조건부 동의( ○ ) 반대(    )

2011년 8월

저작자 : 모 상 근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